

《傷寒論》中 四逆湯類의 病理 및 臨床活用に 關한 研究

羅映喆·金東熙*·金聖勳**

I. 緒 論

四逆湯證類는 少陰病의 陰盛陽虛證을 治療하는 代表的 處方으로 《傷寒論》에 四逆輩라 稱하였으며^{1,7,18,20,29)}, 四逆湯, 四逆加人參湯, 茯苓四逆湯,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 眞武湯,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 附子湯 등 九個의 處方이 傷寒論에 收載되어 있다. 이들은 處方 構成에서 모두 附子가 있으며, 四逆湯을 基本方으로 症狀의 輕重에 따라 處方 造成이 이루어져 있다.

四逆湯類에 對한 研究로 錢⁷⁾은 四逆湯이 齒寒證, 浮腫, 痿證, 痢疾에, 李⁸⁾는 鼻衄, 崩漏에 施⁹⁾는 四逆加人參湯이 嬰幼兒秋季腹瀉에, 歐¹⁰⁾는 茯苓四逆湯이 內耳性 眩暈에, 李¹¹⁾는 通脈四逆湯이 寒暈失音에, 仇¹²⁾는 眞武湯이 右心不全을 兼한 肺心病에 效果의 임을 臨床的으로 報告하였으며, 唐¹³⁾은 家兔의 shock에 미치는 影響을, 韓^{14,15)}은 附子湯이 細胞膜流動性과 心血管에 미치는 影響을 實驗的으로 報告하였으며, 이 밖에 程¹⁶⁾은 四逆湯의 製劑에 關하여 報告하였으나, 四逆湯類의 活用に 대한 綜合的인 比較考察은 아직 接하지 못하였다.

이에 著者는 四逆湯類의 明確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病理 및 處方 構成에 對하여 歷代 醫家들의 見解를 比較·分析하고, 아울러 臨床에서의 效果的인 活용을 위하여 類方鑑別, 衍方 및 臨床報告 등을 中心으로 整理하여 보았다.

II. 本 論

1. 四逆湯

1) 處方構成

炙甘草 二兩 乾薑 一兩半 附子 一枚(生用, 去皮, 破八片)

2) 關聯 條文

(1) 傷寒醫下之 續得下利清穀不止 身疼痛者 急當救裏 後身疼痛 清便自調者 急當救表 救裏宜四逆湯 救表宜桂枝湯[93]

(2) 病發熱頭痛 脈反沈 若不差 身體疼痛 當救其裏 宜四逆湯[94]

(3) 脈浮而遲 表熱 裏寒 下利清穀者 四逆湯主之 [228]

(4) 少陰病 脈沈者 急溫之 宜四逆湯[323]

(5)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脈弦遲者 此胸中實 不可下也 當吐之 若膈上 有寒飲 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四逆湯[324]

(6) 大汗出 熱不去 內拘急 四肢疼 又下利 厥逆而惡寒者 四逆湯主之[352]

(7) 大汗 若大下 利而厥冷者 四逆湯主之[353]

(8) 嘔而脈弱 小便復利 身有微熱 見厥者 難治 四逆湯主之[376]

(9) 吐利汗出 發熱惡寒 四肢拘急 手足厥冷者 四逆湯主之[387]

(10) 既吐且利 小便復利 而大汗出 下利清穀 內寒外熱 脈微欲絕者 四逆湯主之[388]

3) 注家들의 設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慶熙大學校 東西醫學大學院

戚無己	四逆者，四肢逆不溫也。四肢者 諸陽之本，陽氣不足，陰寒加之，陽氣不相順接，是治手足不溫，而成四逆。此湯申發陽氣，却散陰寒，溫經暖肌，是以四逆名之。甘草味甘平。《內經》曰：寒淫于內，治以甘熱，却陰扶陽，逐寒正氣，必先辛熱，是以乾薑爲臣。附子味辛大熱 《內經》曰：辛以潤之，開發腠理，致津液，通氣也，暖肌溫經 必憑大熱，是以附子爲使。此奇制之大劑也。四逆屬少陰，少陰者腎也。腎肝位遠，非大劑則不能達。《內經》曰：遠而奇耦，制大其服，此之謂也。
許宏	今此四逆湯，乃治病在于裏之陰者也。且下利清穀，脈沈無熱，四肢厥逆，脈微，陽氣內虛，惡寒脈弱，大吐大下，元氣內脫，若此諸證，但是脈息陽遲微澁，虛脫不飲水者，皆屬陰也。必以附子爲君，以溫經濟陽；以乾薑爲臣，輔甘草爲佐爲使，以調和二藥而散其寒也。《內經》曰：寒淫于內，治以甘熱。又曰：寒淫所勝，平以辛熱，乃附子之熱，乾薑之辛，甘草之甘是也。
張璐	此湯通治三陰脈沈惡寒，手足逆冷之證，故取附子之生者，上行頭頂，外敷肌表而溫經散寒；乾薑亦用生者，以內溫臟腑，甘草獨用炙者，以外溫營衛，內補中焦也。
柯琴	脈浮而遲，表熱內寒二句，是立方之大旨，脈浮爲在表，遲爲在臟，浮中見遲，是浮爲表虛，遲爲臟寒矣，腹滿吐利，四肢厥逆，爲太陰證，薑附甘草，本太陰藥，諸條不冠以太陰者，以此方爲太陽并病立法也。按四逆諸條，皆是太陽壞病專屬太陰之證。太陽之虛陽流于表而不破，太陰之陰寒，與外來之寒邪相得而益深，故外證則惡寒發熱或大汗出，身體痛，四肢疼，手足冷或脈浮而遲，或脈微欲絕；內症則腹滿腹脹，下利清穀，小便自利，或吐利交作，此陰邪猖獗，眞陽不歸，故云逆也。本方是用四物以救逆之謂，非專治四肢厥冷而爲名。
汪琥	用四逆湯以回其陽，兼復其陰邪以四逆湯中有炙甘草，復能生血故也。……又疑蜜炙甘草，得母吐家所忌，余答云：或實熱之吐，中滿作脹，故忌甘草，今者胸中無物，純是虛寒之氣，方中全賴炙甘草以溫補中氣，至于生附子，但能走腎而散少陰經之寒，乾薑雖能守中止嘔而亦不補，得氣要領，又何待擬議邪。附子散寒下逆氣，補命中之火，上以除嘔，下以止小便，外以回厥逆；乾薑溫中除嘔斂陽氣，使身不微熱；炙甘草溫中補氣，大治胃虛寒作嘔，總而言之，四逆湯雖治三陰厥逆，其力大能溫腎使水溫，使肝木之寒得解，木柔土暖而嘔立止，洵不謬矣。
王晉三	四逆者，四肢逆冷，因證以名方也。凡三陰一陽證中，柳厥者皆用之。故少陰用以救元海之陽，太陰用以溫臟中之寒，厥陰薄厥，陽氣主亡，非此不救，至于太陽誤汗亡陽亦用之者，以太少爲水火之主，非交通中土之氣，不能內復其陽，故以生附子，生乾薑徹上徹下，開壁群陰，迎陽歸舍，交接于十二經。反復以炙甘草監之者，亡陽不至于大汗，則陽未必盡亡，故可緩制留中，而爲外召陽氣之良法。
吳謙	方名四逆者，主治少陰中外皆寒，四肢厥逆也。君以甘草之甘溫，溫養陽氣；臣以薑附之辛溫，助陽勝寒；甘草得薑附，鼓腎陽溫中寒，有水中之暖土之功；薑附得甘草，通關節走四肢，有逐陰回陽之力。腎陽鼓，寒陰消，則陽氣外達而脈自升，手足自溫矣。

(4) 臨床應用

現代 臨床에서 本 方은 心氣硬塞, 心衰¹⁾, 急性 및 慢性胃腸炎²⁾, 吐瀉過多 或 急性病³⁾으로 大汗出 하여 虛脫한 者를 急히 救할 때 常用되며, 또 胃 下垂 等의 病을 治療한다. 證狀이 脾腎兩虛에 屬 하면 本 方證으로 볼 수 있다.

(5) 衍方

1) 四逆加人蔘湯：本 方에 人蔘을 加한 것으로 陽微陰脫로 인한 惡寒, 脈微而復利, 利止亡血, 手足厥冷 등이 나타난 者를 治療한다. 方 中의 四逆 湯은 回陽固脫하고 人蔘을 加하여 다시 生津益血 케 한 것이다.

2) 通脈四逆湯：本 方의 乾薑量을 增量하고, 大 附子를 擇한 것으로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 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而面赤 等을 治療한다. 이는 陰盛于裏하고 格陽于外한 것이다.

3) 通脈四逆加豬膽汁湯：通脈四逆湯에 豬膽汁 을 加한 것으로, 吐已下斷, 汗出而厥, 四肢拘急不 解, 脈微欲絕 等을 治療한다. 이는 陰竭陽亡의 重 證이다.

4) 白通湯：本 方에 甘草를 去하고 葱白을 加 한 것으로, 惡寒, 四肢厥冷, 脈微, 下利, 面赤을 治 療한다.

5) 白通湯加豬膽汁湯：白通湯에 豬膽汁과 人尿 를 加한 것으로, 下利, 脈微, 利不止, 厥逆無脈, 乾 嘔而煩 等을 治療한다.

6) 乾姜附子湯：本 方에서 甘草를 去한 것으로, 下後復發汗, 晝日煩躁不得眠, 夜靜不嘔不渴, 無表 證, 身無大熱, 脈沈微, 手足厥冷 等을 治療한다.

7) 茯苓四逆湯：本 方에 茯苓, 人蔘을 加한 것 으로, 發汗을 治療하고 藥을 服用했는데 病이 不 解煩躁한 者, 手足厥逆, 脈沈微한 것을 治療한다.

8) 六味回陽飲⁴⁾：本 方에 人蔘, 熟地, 當歸를

1)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두권의 書籍에서 附子의 使用을 比較研究한 結果 急救虛脫에는 生附子를 使用하고, 強心과 局部의 衰弱證에서는 炮附子를 輕用하고, 鎮痛에는 炮附子를 重用하였다. (《上海中醫雜誌》 1957 ; 6 : 32)

2) 《廣東中醫》 1958 ; 5 : 34

3) 《廣西中醫藥》1982 ; 4 : 17

4) 張介賓의 《景岳全書》 處方인.

加한 것으로, 陰陽欲脫 或은 命門火衰, 陰中無陽 등을 治療한다.

6) 臨床例

(1) 腹瀉⁵⁾

① 性別 및 年齡 : 一女, 8-9歲.

② 證狀 : 下利證을 앓았는데, 날이 갈수록 沈重해졌다. 醫師가 利濕止瀉劑로 治療하였는데, 服藥後에 얼마지 않아서 四肢厥逆이 됨. 심지어 便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다 便을 보았다.

③ 治療 : 患者를 寢牀에 누이고 四逆湯으로 조금씩 灌注하였다. 後에 下利가 漸次로 減少되었다. 다음날 再診하고 다시 前날의 藥을 服用케 하니 下利가 났고, 厥證이 治療되었으며, 5-6日 後에 復元되었다.

(2) 急性胃腸炎⁶⁾

① 性別 및 年齡 : 女, 30세.

② 證狀 : 急性胃腸炎을 앓았는데, 煩渴欲飲, 食側吐하였고, 水樣便을 下瀉하기를 하루에 十餘次 例하기를 이미 이틀이 되었다. 神疲, 面色蒼白, 眼窩, 舌乾하고 皮部가 彈性을 잃고 四肢厥冷, 脈沈細數하였으며, 血壓은 60/40程度였다.

③ 辨證 : 陽虛陰盛證으로 辨證하였다.

④ 治療 : 回陽救逆해야 하므로 急히 生理食鹽水를 投入하고, 同時에 急히 四逆湯加味한 것을 水煎하여 服用케 하였다. 制附子 9g, 乾薑 15g, 炙甘草 30g, 枳實 30g을 服用한 後에 血壓이 100/70程度로 正常이 되었다.

2. 四逆加人蔘湯

1) 處方構成

甘草 二兩(炙) 附子 一枚(生, 去皮, 破八片) 乾薑 一兩半 人蔘 一兩

2) 關聯條文

惡寒 脈微而復利 利止 亡血也 四逆加人蔘湯主之 (384)

3) 注家들의 設

成無己	惡寒脈微而利者, 陽虛陰盛也; 利止則津液內竭, 故云亡血, <金匱玉函>曰; 水竭則無血, 與四逆湯溫經助陽, 加人蔘生津液益血.
張璐	亡血本不宜用薑附以損陰, 陽虛又用歸芍以助陰. 此以利後惡寒不止. 陽氣下脫已甚, 故用四逆以復陽爲急也. 其所以用人蔘者, 不特護持津液, 兼陽藥得之, 愈加得力耳
柯琴	利雖止而惡寒未罷, 仍宜四逆, 以其脈微爲無血, 當仍加人蔘以通之也
王晉三	四逆加人蔘, 治亡陰利止之方. 蓋陰亡則陽氣亦與之俱法, 故不當獨治其陰, 而以乾薑, 附子溫經助陽, 人蔘, 甘草, 生津和陰.

4) 臨床應用

(1) 무릇 陽氣가 欲脫하러 하고 陰液이 衰亡한 者에게 모두 使用한다. 四逆證에 있어서 大汗, 大吐, 大下 或 大失血 後에 止血이 멎지 않으면서 四肢가 厥하고 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反對로 舌絳口乾, 渴不引飲, 人更煩躁하면 이는 亡陽과 亡陰을 兼한 것이므로 本方으로 治療한다.

(2) 虛寒下利로 陽氣가 亡하여 液脫하면 惡寒, 脈微한데, 下利가 그쳐도 惡寒하고 脈微 등의 證狀이 있는 境遇를 治療한다.

(3) 尿床 : 꿈을 꾸지 않고 尿床하는 者는 本方으로 回陽益陰한다.

(4) 遺精 : 陰頭가 차갑고 滑精頻作, 精氣清冷(精液稀薄, 精子少, 或無精子)하며 더불어 面色이 晄白하고 精神萎靡, 舌質淡苔白, 脈沈弱한 者는 本方으로 陽氣를 回復시키고 斂精益陰한다.

5) 衍方

(1) 參附湯 : 本方에 乾薑, 甘草를 去한 것으로 元氣大虧하여 陽氣가 暴脫하여 나타나는 手足厥冷, 汗出呼吸微弱, 脈微의 證을 主治하며 回陽, 益氣, 救脫亡한다.

(2) 回陽救急湯 : 本方에 肉桂, 白朮, 茯苓, 陳皮, 五味子, 法半夏, 麝香, 生薑을 加한 것으로 陰寒內盛하여 陽氣가 衰해서 나타나는 四肢厥冷, 惡寒踰臥, 腹痛吐瀉, 不渴, 或指端口唇紺, 舌淡苔白滑, 脈來沈進無力, 甚或無脈 등을 回陽救急하여 治療하는 益氣生脈의 良方이다.

6) 臨床例

(1) 心動過緩⁷⁾

5) <廣東中醫> 1958 ; 5 : 34

6) <廣西中醫藥> 1982 ; 4 : 17

7) <傷寒解惑論>

- ① 性別 및 年齡 : 女, 中年.
- ② 證狀 : 胸中滿悶, 手足發涼, 脈沈遲하였다. 西醫에서는 心動過緩으로 診斷하였다.
- ③ 治療 : 四逆加入參湯方을 5, 6첩을 服用한 後 完快되었다.

(2) 吐血⁸⁾

- ① 性別 및 年齡 : 男, 64歲
- ② 證狀 : 吐血盈盈, 氣息奮奮, 閉目不語, 汗出淋漓, 脈沈微, 肢冷如冰하여 危急하기가 頃刻이었다.
- ③ 辨證 : 氣隨血脫로 辨證하였다.
- ④ 治療 : 初診하여 參須 9g, 炙北芪 30g, 熟附片 12g, 炮乾薑 6g, 炙甘草 6g을 服用시켰다. 再診하니 다음날 肢溫汗斂血止하며 오직 精神疲憊, 聲音低微하였다. 脈息較起하였지만 다만 甚히 微弱하여 비록 機轉은 轉換됐으나 아직 脫의 危險이 없지 않으므로 原方에 白朮 9g, 白芍藥 9g을 加하였다. 三診하니 脈이 比較的 有力하여 精神이 爽快해지고 安定되어 갔다. 原方을 加減하여 黨參 9g, 炙北芪 12g, 熟附片 9g, 乾薑 3g, 焦白朮 9g, 炙甘草 4.5g, 白芍藥 9g을 服用시켰다. 이 후 症狀이 輕減되었고 後에 歸脾湯으로 調理한 後 完快되었다.

(3) 少陰寒化證⁹⁾

- ① 性別 및 年齡 : 男, 54歲
- ② 證狀 : 手足厥逆, 脈微欲絕, 下利清穀, 不惡寒함.
- ③ 治療 : 初診에 北薑 6g, 附子 4.5g, 炙甘草 4.5g, 粉黨參 15g으로 連續 三貼을 服用한 後에 脈緩하고 手足溫하였다. 繼續하여 四君子加味方을 投與한 後에는 더욱 證狀이 輕減되었다. 다시 人蔘 3g 白朮 9g 茯苓 4.5g 炙甘草 3g 附子 4.5g을 服用시킨 後에 治療되었다.

3. 茯苓四逆湯

1) 處方構成

茯苓 四兩 人蔘 一兩 附子 一枚(生用, 去皮, 破八片) 甘草二兩(炙) 乾薑 一兩半

2) 關聯條文

發汗若下之 病仍不解 煩躁者 茯苓四逆湯主之 (69)

3) 注家들의 設

王晉三	茯苓四逆湯, 卽眞武湯之變方. <太陽篇>中汗出煩燥, 禁用大青龍, 卽以眞武湯救之. 何況煩燥生于先汗後下, 陽由誤下而欲亡, 能不救下元之眞陽乎? 故重用茯苓六兩滲泄. 人蔘, 甘草下行以安欲失之眞陽, 先用乾薑, 附子以祛未盡之寒邪, 陽和躁寧, 不使其手足厥逆, 故亦名四逆.
尤怡	汗下後煩燥一證, 悉是正虛邪擾之故, 而有邪多虛少或虛多邪少之分. 邪多者宜逐邪以安正, 虛多者宜助正以逐邪, 仲景既著樞密湯之例, 復例茯苓四逆之法, 其于汗下後煩燥一證, 虛實互舉, 補瀉不遺如此, 學者所當究心也.
吳謙	夫先下後汗, 于法爲逆, 外無大熱, 內不嘔渴, 似乎陰陽自和, 而實陽虛陰盛, 所以虛陰擾亂于陽分, 故晝日煩躁不得眠; 盛初獨治于陰分, 故夜而安正, 脈沈微, 是眞陽將脫煩燥也. 用乾薑, 附子壯陽以配陰, 薑附者, 陽中陽也. 生用則方不銳, 不加甘草, 則勢更猛, 比之四逆更爲峻, 救其相離, 故當急也. 先汗後下, 于法爲順, 病仍不解, 遽增晝夜煩燥, 亦是陰盛格陽之煩燥也, 用茯苓四逆抑陰以回陽. 茯苓感太和之氣化, 伐水邪而不傷陽, 故以爲君; 人蔘生氣于鳥有之鄉, 通血脈于欲絕之際, 故以爲佐. 人蔘得薑, 附, 補氣兼以益火; 薑附得茯苓, 補陽兼以瀉陰; 調以甘草, 比之四逆稍爲緩和, 其相格故宜緩也. 一去甘草, 一加蔘苓, 而緩急自別, 仲景之妙用如此
丹波元堅	茯苓, 前輩稱爲益陰, 愚謂滲利之品, 恐無其功. 蓋脾胃喜燥而惡濕, 其燥必暖, 陽氣以旺, 其濕必冷, 陽氣以衰, 水谷淤溜, 津液不行, 苓之滲利, 能去水濕, 此所以佐蔘附以逐內寒, 與理中之朮, 其理相近矣.
錢潢	茯苓虛無淡滲而降下, 導無形之火以入坎水之源, 故以爲君, 人蔘補汗下之虛, 而益胃中之津液; 乾薑辛熱, 守中而暖胃; 附子溫經, 直達下焦, 導龍火以歸源也
沈明宗	此風寒兩傷, 汗下後, 陽虛發躁也. 風寒兩傷, 則當用大青龍解表, 而誤施汗下, 猶亂眞陽, 陰邪上逆, 轉增煩燥. 陽有煩燥之機, 風寒在所不計, 惟取茯苓, 人蔘, 甘草, 乾薑, 附子, 以逐陰邪下行, 安和欲越之陽, 俾邪熱自退, 而煩燥得安, 若以散劑, 立斷其根矣.
柯琴	未經汗下而煩燥, 爲陽盛; 汗下後煩燥是陽虛. 汗多既亡陽, 下多又亡陰, 故熱仍不解. 薑附以回陽, 蔘苓以滋陰, 則煩燥止而外熱自除, 此又陰陽雙補法
汪琥	用茯苓, 人蔘, 甘草補中而生陰血也; 附子, 乾薑, 除寒而回陽氣也. 此可見不汗出之煩燥, 用大青龍湯與既汗下之煩燥, 用此湯, 不大相徑庭邪?

8) <江西中醫藥> 1959 : 5 : 30

9) <福建中醫藥> 1959 : 8

喻昌	汗下不解，轉增煩燥，則真武有欲亡之機，而風寒之邪，在所不計，當用 茯苓，人參，乾薑，附子溫補兼行，以安和其欲越之陽，俾虛熱自退，煩燥自止，乃為合法。若因煩燥，更加散邪，則立死矣。夫不汗出之煩燥，與發汗後之煩燥，毫釐千里。不汗出之煩燥 不辨脈以誤投大青龍，尙有亡陽之變。是則發汗後之煩燥，則不誤在藥，而誤在汗矣。此仲景所謂見微知著，仿真武之例，更加人參之補，以嘿杜其危哉。
成無己	茯苓四逆湯，以復陰陽之氣，四逆湯以補陽，加茯苓人參以益陰。
方有執	茯苓人參入心以益虛，心安則液斂也，四逆湯者，回陽以復陰，陽倡則陰隨也。
不著撰人	汗出煩燥，風症之常也。不汗出而煩燥，即為大青龍證，然脈弱汗出，諄諄相戒，謂挾風表虛而又汗之，其亡陽為最易也。今汗下不解，轉增煩燥，是正虛不能勝，邪雖與之爭，而有欲負之勢，故用茯苓最多。并人參，甘草，乾薑，生附，仿誤用大青龍施真武之例，而去朮芍加入參，甘草，俾溫補兼施，以安其欲亡之陽，使虛熱自退，煩燥止而風寒之邪在所不計耳。

4) 臨床應用

(1) 《聖濟總錄》의 平胃方이 本方이다. 霍亂吐瀉, 臍上筑悸한 者를 治療한다.

(2) 霍亂吐瀉가 嚴重하고 吐瀉後에 四末逆冷하고 筋惕, 煩躁, 無熱不渴, 心下痞滿, 小便不利, 脈細微한데 本方을 使用하여 小便이 利케 하면 諸症이 解消된다.

(3) 本方을 陽虛陰傷하여 厥逆과 煩躁가 同伴한 證에 應用하는데, 久病에 陽衰陰傷하면 面과 四肢가 微腫하고 煩躁한다.

(4) 尿頻: 陰陽兩傷하여 尿頻한 證狀이 밤에 甚하고 色白量少, 無尿疼, 尿赤, 小腹不脹, 脈沈遲無力한 者를 治療한다.

(5) 無脈證: 驚恐하여 이것이 心腎까지 미친 것으로 心은 血脈을 主하고 腎은 精을 主하여 驚하면 傷心하고 恐하면 傷腎하여 精血이 모두 傷하므로 氣가 있을 곳이 없어 脈이 充分치 못하게 되어 無脈이 生한다. 證狀으로는 昏迷不醒, 四肢厥冷, 顔面蒼白, 寸關尺脈皆無한데 本方으로 補心腎陰陽하여 氣血을 充滿히 한다.

(6) 失眠: 證狀이 失眠無夢, 疲乏無力, 舌淡苔薄白, 脈虛弱한 者는 本方으로 補益心腎, 心腎相交하면 失眠이 自愈한다.

5) 臨床例

(1) 傷寒誤下로 인한 變症¹⁰⁾

① 性別 및 年齡: 男, 52歲.

② 證狀: 傷寒에 病된지 벌써 1個月이 되었다. 그 동안 數次 治療를 받고 發汗시켰으나 效果가 없고 도리어 腹滿이 甚해지고, 躁症이 發하고, 6, 7日동안 大便을 보지 못했다. 醫師가 다시 承氣湯으로 下해서 服滿을 줄였으나 煩燥不寧은 사라지지 않았다. 脈象細數, 舌赤無苔, 元澤少津, 身倦體疲, 飲食少思, 不能入寐하였다. 誤汗後 亡陽으로 因하여 脈象不虛細數하였으며 또한 不利肢厥의 亡陽證은 없었다. 舌赤脣燥, 脈象細數하였다.

③ 辨證: 陰傷하여 陽을 維持하지 못한 것으로 茯苓四逆湯證이다.

④ 治療: 初診에 茯苓 1.8g, 人參 3g, 附子 3g, 甘草 10g, 乾薑 6g, 貢阿膠 6g, 杭白芍藥 10g을 2劑 服用한 後, 煩躁가 平定되고 漸次 睡眠에 들었으나 여전히 不思食, 口乾舌燥하였다. 再診하여 原方中에 益和하고 胃進食케 하는 生山藥, 鮮石斛, 鷄內金 類를 加하여 三貼을 服用한 後 食慾이 進展되고 精神이 回復되었으며 後에 扶脾益陰之劑로 調理한 後에 治愈되었다.

(2) 心悸¹¹⁾

① 性別 및 年齡: 男, 53歲.

② 證狀: 心慌氣喘이 反復發作한지 이미 3年이며 近日에 또 復發하였다. 近 3年동안 恒常 心悸氣喘이 發하여 每年2~3次 發作하고 每次에 15分 정도 發作하였다. 心悸氣喘, 伴有咳嗽, 食慾減退, 食後 惡心嘔吐가 일어나고 이번에는 發作이 持續되나 낮지 않고 平臥할 수도 없었고, 平臥하면 上述한 證狀이 더욱 甚해졌다. 神志尙清, 時躁擾하였으며, 心搏動은 212次/分이었다. 西醫에서는 陳發性心動過速으로 診斷하였다.

③ 治療: 熟附片 24g, 淡乾薑 12g, 炙甘草 9g, 台黨參 12g, 白茯苓 12g, 法半夏 9g을 매일 服用한 後 心搏動이 106次/分으로 되었으며 心慌好轉을 自覺하였다. 다시 三貼을 服用한 後 心搏動이 84次/分으로 되었고, 心音도 安靜되었다.

(3) 尿路結石感染¹²⁾

10) 《傷寒論臨床實驗錄》 天津科學出版社, 1984

11) 《中醫雜誌》 1961; 3: 11

12) 《山東醫學院學報》1981; 4: 52

① 性別 및 年齡 : 男, 26歲.

② 證狀 : 平素 體力이 強健한데 갑자기 右側 腰部에 劇烈한 疼痛이 發生하며 尿頻, 尿急, 量少, 色赤, 面白自汗, 四肢厥冷, 脈沈細하였다. 尿를 檢査해보니 赤血球(+++), 白血球(++)으로 나왔다. 尿路結石에 感染이 同伴된 것으로 診斷하고 治療하였으나 疼痛이 治療되지 않았다.

③ 辨證 : 少陰寒厥證이다.

④ 治療 : 마땅히 回陽救逆, 扶正固脫해야 한다. 初診에 茯苓四逆湯을 服藥한 後, 陽還汗斂, 痛止肢痠, 胃納稍增, 二便通調, 脈緩, 舌淡紅而潤하였다. 再診하고 前方에 肉桂粉 1.5g, 玉米鬚 1g, 生麥芽 15g을 加해서 服用한 後 腰痛이 나왔고 精神이 맑아졌으며 脈緩, 舌淡紅而潤하였다. 때가 夏令이 되어서 淸震湯(升麻, 茅根, 荷葉)에 薏苡仁, 赤小豆를 加해서 升淸降濁하고 去暑濕한 後에 完快되었다.

4. 通脈四逆湯

1) 處方構成

甘草 二兩(炙), 附子(生用, 去皮, 破八片) 一枚, 乾薑 三兩(強人可四兩)

2) 關係條文

(1) 少陰病 下利淸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色赤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317]

(2) 下利淸穀 裏寒外熱 汗出而厥者 通脈四逆湯主之[369]

3) 注家들의 說

方有執	夫脈者, 血氣之道路也. 血, 陰也, 非陽不行, 薑, 附辛熱, 助陽也; 甘草甘平, 益氣也. 湯本四逆而分兩殊, 通脈則加薑之謂
不著撰人	寒見寒證, 熱見熱證, 此其常也. 寒熱證并見, 是陰寒隔陽于外, 不能內返也. 故少陰病, 下利淸穀, 厥逆脈微, 腹痛寒也, 而反外熱, 不惡寒, 面赤, 乾嘔, 咽痛, 則爲陰陽相背, 而元陽飛散之氣, 卽于四逆加蔥, 以入陰而迎陽, 又倍乾薑以壯溫暖之氣, 加甘草一兩, 以大和調之用, 蓋通之于外. 正攝之于內也. 其至戴陽汗出者 亦用之, 則合甘草, 乾薑, 大甘大熱之間, 有妙用耳. 雖汗出而不忌蔥, 可知此證之急務, 妙在通之也已. 故藥同四逆而別作湯名, 重在加減也.

柯琴	其人面色赤, 是爲戴陽, 此下焦虛極也, 恐四逆之劑, 不足以起下焦之元陽, 而續欲絕之脈, 故倍加其味, 作爲大劑, 更加蔥以通之. 葱稟東方之色, 能行少陽生發之氣, 體空味辛, 能入肺以行營衛之氣, 薑附參甘, 得此以奏捷于經絡之間, 而脈自通矣. 脈通則虛陽得歸其部, 外熱自除而裏寒自解, 諸證無虞矣
江琥	武陵陳氏云: 通脈四逆, 卽四逆湯也. 其異于四逆者, 附子云大, 甘草. 乾薑之分兩加重, 然有何大異, 而加通脈以別之? 曰四逆湯者, 治四肢逆也. 論曰: 陰陽之氣, 不相順接, 便爲厥, 厥者 陽氣虛也, 故以四逆益眞陽, 使其氣相順接, 而厥逆愈矣. 至于裏寒之甚者, 不獨氣不相順接, 并脈亦不相順接, 其證更劇. 故用四逆湯, 而制大其劑, 如是則能通脈矣. 同一藥耳, 加重則其治不同, 命名亦別, 方亦靈怪矣哉. 葱味辛, 入手太陰經, 故能引諸藥料以通脈. 蓋兩手之脈, 實屬手太陽肺經也. 又入足陽明經, 故能上行于面而通陽氣. 以足陽明之脈, 循鼻外, 上耳前, 實面部也. 原方中無蔥者, 乃傳寫之漏, 不得名通脈也.
錢潢	以四逆湯, 而倍加乾薑, 其助陽之力, 或較勝. 然既增通脈二字, 當自不同, 恐是已加蔥白, 以通陽氣, 有白通之義. 故有是名, 加減法, 揣其辭義淺陋, 料非仲景本意, 何也? 原文中已先具諸或有之證, 然後出方立治, 則一通脈四逆湯, 其證皆可該矣, 豈庸續用加減耶? 況其立意, 庸惡陋劣, 要皆出于鄙俗之輩
尤怡	通脈四逆卽四逆加乾薑一倍, 爲陰內陽外, 脈絕不通, 故增辛熱以逐寒邪, 寒祛則陽復返, 而脈復出, 故曰其脈卽出者愈.
王三	通脈四逆, 少陰格陽, 面赤陽越欲亡, 急用乾薑, 生附子奪門而入, 驅散陰霾, 甘草監制薑, 附烈性, 留頓中宮, 扶持太和之氣, 藉蔥白入營通脈, 庶可迎陽內返, 扶仲景之心, 是取其脈通陽返, 了無餘義矣. 至于腹痛加芍藥, 嘔加生薑, 咽痛加桔梗, 利不止加人參, 或涉及太陽, 或干陽明, 或陰火潛上, 或穀氣不得, 非格陽證中所必有者也. 故仲景不列藥品于主方之間, 學者所當詳審.
吳謙	論中扶陽抑陰之劑, 中寒陽微不能外達, 主以四逆, 中外俱寒, 陽氣虛甚, 主以附子, 陰盛于下, 格陽于上, 主以白通, 陰盛于內, 格陽于外, 主以通脈. 是則可知四逆運行陽氣者也, 附子溫補陽氣者也, 白通宣通上下之陽者也, 通脈通達內外之陽者也. 今脈微欲絕, 裏寒外熱, 是腎中陰盛, 格陽于外, 故主之也. 倍乾薑, 加甘草佐附子, 是名通脈四逆湯者, 以其能大壯元陽, 主持中外, 共招外熱返之于內. 蓋此時生氣已離, 亡在俄頃, 若以柔緩之甘草爲君, 何能疾呼外陽? 故易以乾薑. 然必加甘草與乾薑等分者, 恐散漫之餘, 薑附之猛, 不能安養元氣, 所謂有制之師也. 若面赤者, 加蔥以通格上之陽. 腹痛者, 加芍藥以和在裏之陰. 嘔吐者, 加生薑以止嘔. 咽痛者, 加桔梗以利咽, 利止脈不出氣少者, 俱倍人參, 所生元氣而復脈也.

4) 臨床應用

- (1) 四逆湯證에 吐利厥冷이 甚한 者를 治한다.
- (2) 吐利汗出, 發熱惡寒, 四肢厥冷, 脈微欲絕, 或腹痛, 或乾嘔, 或乾嘔者는 通脈四逆湯으로 主한다.
- (3) 現代臨床에서는 本方을 急性傳染病의 高熱後期의 少陰寒化證과 身反不惡寒, 煩躁, 面赤, 咽痛¹³⁾ 등의 假熱現狀이 나타나는 者에 모두 使用할 수 있다. 腸傷寒 後期에 나타나는 腸出血證이 嚴重한 者는 恒常 汗多亡陽을 同伴하는데 위태롭게 된 때에 本方을 使用하여 回陽通脈하면 좋은 效果를 얻을 수 있다¹⁴⁾.

5) 衍方

(1) 通脈四逆加豬膽汁湯 : 本方에 豬膽汁(半升) 10ml를 加한 것으로 그 苦鹹益陰으로 從陰引陽케 한 것이다. 大劑의 薑附로 因한 躁動浮陽의 弊를 補佐한 것으로 下利가 甚하고 大汗出, 四肢拘急, 陽亡陰脫, 陽傷이 더욱 嚴重할 때 使用한다.

6) 臨床例

(1) 少陰格陽¹⁵⁾

① 性別 및 年齡 : 男, 1歲.

② 證狀 : 그 母가 말하기를 7日前에 發熱이 甚하여 西醫診斷을 받아 重感冒라 診斷받았으며 淸熱劑, 鎮痙劑等의 西洋藥 治療를 했으나 數日後에도 高熱이 不退하고 있다고 하였다. 證狀이 眼睛無神, 閉目嗜睡, 四肢厥冷, 脈浮大無根하고 心肺正常, 腹部無異常, 體溫 39.5℃, 白血球數가 9800/mm³이고, 그 中에 中性이 80%, 淋巴가 15% 이었다.

③ 辨證 : 少陰格陽證의 但欲寢에 符合되므로 少陰格陽證으로 診斷

④ 治療 : 治法은 마땅히 溫中回陽하고 散寒하여야 하므로 通脈四逆湯을 使用하였다. 乾薑 24g, 附子 1.5g, 甘草 1.5g을 水煎하여 冷服하였다. 藥을 服用한 後 患者는 4時間동안 熟眠하였다. 깨어난 後 精神이 좋아지고 四肢가 不逆冷하고 眼睛도 大睜하여졌다. 體溫은 37℃, 化學檢査에서 白血球數는 8400/mm³이었으며, 一切의 證狀이 消失되고

完快되었다.

5. 通脈四逆加豬膽汁湯

1) 處方構成

甘草 二兩(炙) 乾薑 三兩(強人可四兩) 附子(生, 去皮, 破八片) 大者一枚 豬膽汁 半合

2) 關聯條文

吐已下斷 汗出而厥 四肢拘急不解 脈微欲絕者 通脈四逆加豬膽湯主之[389]

3) 注家들의 說

成無己	脈微欲絕者, 陽氣大虛, 陰氣獨勝也. 若純與陽藥, 恐陰爲格拒, 或嘔或躁, 不得復入也. 與通脈四逆湯加豬膽汁, 膽苦入心通脈, 膽寒補肝而和陰, 引置陽藥不被格拒. 《內經》曰: 微者逆之, 甚者從之, 此之謂也.
柯琴	此必有陰盛格陽之證, 故加膽汁爲反佐.
張錫駒	吐已下斷者, 陰陽氣血俱虛, 水穀津液俱竭. 無有可吐而自己, 無有可下而自斷也. 故汗出而厥, 四肢拘急之亡陰證. 與脈微欲絕之亡陽證, 仍然不解. 更宜通脈四逆加豬膽, 啓下焦之元陽, 而助中焦之津液.
王晉三	四逆加豬膽汁, 爲陽虛陰甚從治之方. 津液內竭, 脈微欲絕, 是亡陰亡陽. 由于吐已下後, 用四逆必當通脈, 固中焦胃陽, 啓下焦元陽, 但陰甚格拒, 恐陽藥入中, 強梁不伏, 故以豬膽汁苦寒從陰之性, 引領陽藥從心通脈, 先和陰以後復陽.
吳謙	霍亂吐下已止, 汗出而厥, 四肢拘急, 脈微欲絕者, 乃中寒極盛, 陰格陽氣不達于四肢也, 宜通脈四逆湯加豬膽汁, 從陰以通陽也.
黃元御	吐利俱止, 氣泄裏寒, 經陽虛敗, 則汗出而厥, 四肢拘急, 而脈微欲絕. 通脈四逆溫補火土, 以通經脈; 豬膽汁淸上熱而止汗出也.
丹波元簡	案志聰, 錫駒注, 本方更加人尿, 然原文中無所考. 蓋據白通加豬膽汁湯, 而有此說耳. 錫駒云: 每見夏月霍亂之證, 四肢厥逆, 脈微欲絕, 投以理中四逆, 不能取效, 反以明礬少許, 和涼水服之, 而即愈. 亦即膽汁人尿之意, 先賢立法, 可謂周遍詳明矣

4) 臨床例

(1) 吐瀉後厥冷轉筋¹⁶⁾

① 初診證狀 : 大吐大瀉한 後에 汗出如珠하고 厥冷轉筋, 乾嘔頻頻, 面如土色, 肌肉削弱, 眼周圍陷凹, 氣息奄奄, 脈象欲絕하였다.

② 辨證 : 敗象畢露한 것으로, 不治라고 診斷.

③ 治療 : 最後手段으로 豬膽 두개를 가지고, 附子三兩, 乾薑五兩, 炙甘草九錢으로 處方을 하였다.

13) 江蘇中醫, 2 : 14, 1965.

14) 中醫雜誌 2 : 14, 1962.

15) 中醫雜誌 2 : 14, 1962.

한 편으로는 煎藥하고, 한 편으로는 猪膽汁을 口灌하였는데, 多幸히 猪膽汁이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乾嘔가 漸次 그치기 시작하였다. 煎湯藥도 조금씩 入胃케 하였다. 再診時 手足이 조금 溫하고, 汗出이 그치었으나, 아직도 險證이 자못 남아 있어, 다시 炮附子 二兩, 乾薑 一兩五錢, 炙甘草 六錢, 高麗蔘 三錢으로 處方하여 繼續해서 服用케 하였다. 다음날 患者家族이 ‘어제 藥을 服用하고 난 後에 呻吟이 커지고, 渴飲하니, 先生이 다시 淸熱시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였다. 내가 자못 어제 乾薑, 附子를 너무 使用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으나, 집에 가서 보니 病人이 비록 煩躁가 있으나, 能히 아픈 곳을 말할 수 있고, 神志도 漸次로 좋아지고 있었으며, 診脈하여보니 그 脈역시 漸次 回復되고 있었다. 이는 陽氣가 다시 振興되려는 機轉이다. 病人이 口渴, 心煩不耐, 肌肉硬痛이 있는 것은 本來 大吐大瀉한 後에 陰液이 過多하게 耗傷되어 臟腑와 肌肉을 濡養하지 못한所致였다. 지금 陰病에 陽證이 보이는 것은 이제 生하려는 것이고, 또 家族들이 말하기를 아침에 小便을 一次 보았다고 하니 이것도 좋은 徵兆이다. 上方에 비추어서 다시 茯苓 五錢을 加하고, 아울러 好酒로 그 硬痛한 部分을 摩擦케하였다. 이렇게 二貼을 먹으니 煩躁가 除去되고, 諸證이 모두 사라졌고, 다시 二貼을 먹으니 精神과 氣分이 淸快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 以後에 다시 健運脾胃, 陰陽을 雙補하는 治法을 使用하고, 食物로 補助의으로 調養케 하니 數日後에 健康이 모두 回復되었다.

6. 眞武湯

1) 處方構成

茯苓 三兩 芍藥 三兩 白朮二兩 生薑 三兩(切) 附子一枚 (炮, 去皮, 破八片)

2) 關聯條文

(1) 太陽病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者 眞武湯主之(84)

(2)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 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眞武湯主之(316)

3) 注家들의 說

成無己	眞武, 北方水神也, 而屬腎, 用以治水焉. 水氣在心下, 外帶表而屬陽, 必應發散, 故治以眞武湯. 靑龍湯主太陽病, 眞武湯主少陰病. 少陰腎水也, 此湯可以之和之, 眞武之名得矣. 茯苓味甘平, 白朮味甘溫, 脾惡濕, 腹有水氣, 則脾不治.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滲水緩脾, 必以甘爲主. 故以茯苓爲君, 白朮爲臣, 芍藥味酸微寒, 生薑味辛溫, <內經>曰: 寒淫所勝, 平以辛熱. 溫經散寒, 是以附子爲使也. 水氣內漬, 至于散, 則所行不一, 故有加減之方焉. 若咳者, 加五味子, 細辛, 乾薑, 咳者, 水寒射肺也. 肺氣逆者, 以酸收之. 五味子酸而收也, 肺惡寒, 以辛潤之, 細辛, 乾薑辛以潤之, 細辛, 乾薑辛以潤也. 若小便不利者, 去茯苓, 茯苓專滲泄者也. 若下利者, 去芍藥加乾薑, 酸之性瀉, 去芍藥以酸泄也. 辛之性散, 加乾薑以散寒也. 嘔者, 去附子, 加生薑, 氣上逆則嘔, 附子補氣, 生薑散氣, 兩不相損, 氣則順矣.
方有執	眞武者, 北方陰精之宿, 職專司水之神, 以之名湯, 義取之水. 然陰寒甚而水泛溢, 由陽困弱, 而土不能制伏也. 是故朮與茯苓燥土勝濕, 芍藥附子利氣助陽, 生薑健脾以煖土. 則水有制而陰寒退, 藥與病宜, 理至必愈.
不著撰人	熟附能補, 配以生薑之辛, 則補中有宣發之意; 兼用芍藥之酸, 則宣中有收斂之能. 復加苓, 朮者, 蓋水本坎, 正惟挾外邪, 而橫流逆射. 今有薑, 附, 芍以溫經而調劑之矣. 苓, 朮復能攝水下入, 故少陰病至四五日有水氣者用之, 水既下趨, 則不復能上注也. 此之誤汗而亡陽, 心悸, 頭眩, 身瞤者亦用之. 水既內入, 則不復能外溢也. 一舉而扶土制水, 共成溫經之功. 故曰眞武, 取其能鎮北方之水也.
柯琴	眞武, 主北方水也, 坎爲水, 而一陽居其中, 柔中之剛, 故名眞武. 取此名方者, 所以治少陰水氣爲患也. 蓋水體本靜 其動而不息者, 火之用耳, 若坎宮之火用不宣, 則腎家之水體失職不潤而下逆行, 故中宮四肢俱病. 此腹痛下利, 四肢沈重疼痛, 小便不利者, 由坎中陽虛, 下焦有寒不能制水故也, 法當壯元陽以消陰翳, 培土泄水, 以消留垢. 故君大熱之附子, 以尊陰中之陽; 佐芍藥之酸苦, 以收炎上之氣; 茯苓淡滲, 止潤下之體; 白朮甘溫, 制水邪之溢; 生薑辛溫, 散四肢之水, 使少陰之樞機有主, 則開闔得宜, 小便得利, 下利自止, 腹中四肢之邪解矣. 若兼咳者, 是水氣射肺所致, 故加五味之酸溫, 佐芍藥以收腎中水氣; 細辛之辛溫, 佐生薑以散肺中水氣, 而咳自除. 若兼嘔者, 是水氣在胃, 因中焦不和, 四肢亦不治, 此病不涉少陰, 由于太陰濕化不宜也, 與治腎水射肺者不同法, 不須附子以溫腎水, 倍加生薑以散脾濕, 此爲和中之劑, 而非治腎之劑矣. 若小便自利而下利者, 是胃中無物, 此腹痛因于胃寒, 四肢因于脾濕, 故去芍藥之陰寒, 加乾薑以佐附子之辛熱, 即苓之甘平者亦去之, 此爲溫中之劑, 而非利水之劑也. 要眞武加減, 與小柴胡不同, 小柴胡少陽半表之劑, 只不去柴胡一味, 便可名柴胡湯. 眞武以五物成方, 爲少陰治本之劑, 去一味便不成眞武. 故去薑加蔘, 卽名附子湯, 于此見治方有陰陽動靜之別也

汪 昂	此足少陰藥也。茯苓，白朮補土利水，能伐腎邪而療心悸；生薑，附子回陽益胃，能壯真火而逐虛寒；芍藥酸收，能斂陰和榮而止腹痛。
汪璠	本治少陰病，腎氣虛寒不能治水之證，其治太陽病汗出仍發熱心下悸云云者，此不過借以兼主也。夫心下悸，非水氣上逆之比，乃陽虛而心氣不安，方中用苓朮薑附以補裏虛，助真陽保驚悸。其用芍藥者，謂能挾朮附以斂陽虛之汗，蓋汗斂而熱自衰也。人身之陽主氣爲火，火之源本于心，下通于腎，腎屬水，水中有火，陽虛則火離其根，故外發熱而上見心悸頭眩等證。湯名真武者，正以見上證，不治太陽膀胱之經，當治少陰右腎命門，此實從其根，固其本也，斯其理豈易言哉。或問治不在表，何以方中猶用生薑？余答云：病自太陽經誤汗以來，雖無鬱熱可發，其虛寒之邪，終由此經而入，方中用生薑者，乃補中有發之意也。
汪璠	真武湯 專治少陰裏寒停水，君主之藥，當是附子一味，爲其能走腎溫經而散寒也。水來侮土，則腹痛下利，故用苓朮芍藥以滲停水，止腹痛。四肢沈重是濕，疼痛是寒，此略帶表邪，故用生薑以散邪，或疑芍藥酸寒，當減之極是，然上證系裏氣虛寒。方中既有薑附之辛，不妨用芍藥之酸，以少斂中氣。若咳者，水寒射肺，肺寒張舉，既加細辛，乾薑以散水寒，不妨加五味子以斂肺，但五味子酸味太厚，不須半升之多也。小便利者不得云無伏水，乃下焦虛寒，不能約束水液，其色必白。去茯苓者，恐其泄腎氣也。若下利者，裏寒甚，故祛芍藥加乾薑。嘔者水寒之氣上壅于胸中也，加生薑足前成半斤，以生薑爲嘔家聖藥。若去附子，恐不成真武湯矣。注云附子補氣，夫虛寒，何妨熱補。若嫌補氣，方中何以不去白朮，反去附子？
喻昌	蓋真武乃北方水之神，龍惟藉水乃能變化，而水者真武之所司也，設真武不與之以水，青龍之不能奮然升天可知矣。故方中用茯苓，白朮，芍藥，附子行水收陰，醒脾崇土之功。多于回陽，名之曰真武湯，內收拾分馳離絕之陰陽，互鎖于少陰北方之位。其所收拾者，全在收拾其水，使龍潛而不能見也。說有一毫水氣上逆，龍即得遂其升騰變化，縱獨用附子乾薑以回陽，其知魄汗不止何哉？
張錫駒	真武者，鎖水之神也。水性動，今動極不寧，故亦此鎖之。茯苓松之餘氣，潛伏于根，故能歸伏心神而止悸，附子啓下焦之生陽，上循于頭而止眩，芍藥滋養榮血，生薑宣通經脈而調動自止，白朮所以資中土而灌溉四傍也。
王晉三	朮，苓，芍，薑，脾胃藥也。太陽，少陰，水臟也。用崇土法鎮攝兩經水邪，從氣化而出，故名真武。茯苓淡以勝白朮之苦，則苦從清化，便能入腎勝濕；生薑辛以勝芍之酸，則酸從辛化，便能入膀胱以攝陽，然命名雖因崇土，其出化之機，畢竟重在坎中無陽，假使腎關下利，不由膀胱氣化，焉能出諸小便，故從上不寧之水，全賴附子直走下焦以啓其陽，則少陰水邪必從陽部注于經而出矣，非但裏鎖少陰水泛，并可抗御太陽亡陽。

尤 怡	方用白朮，茯苓之甘淡，以倍土而行水，附子，生薑之辛，以復陽而散邪，芍藥之酸，則入陰斂液，使泛濫之水，盡歸大壑而已耳。
徐 詔	少陰亡陽之證，乃陰寒內盛，微陽外亡，用真武湯，回陽御陰，惟恐其回之不速，而御之不捷也。何反用芍藥陰重之物，弒絆附子雄大之勢，必致迂緩無功，此真武湯中，芍藥斷斷不可用。
黃元御	真武湯，苓朮泄水而燥土，生薑止嘔而降濁，附子溫癸水之寒，芍藥清乙木之風也。
王廣運	真武湯附子微溫，生薑辛熱回陽益衛能壯真火而逐虛寒；白朮苦溫，茯苓甘淡，補土利水能伐腎邪而療心悸；芍藥酸收能斂陰和營而止腹痛，真武北方之神一龜一蛇，司水火者之，腎命象之，此方劑火而利水，蓋取固腎爲義也。

4) 臨床應用

(1) 本 方은 脾腎陽虛를 治療하며 水邪로 病이 된데 有效한 處方이다. 四肢沈重 或浮腫, 小便不利, 苔白不渴, 脈沈한 것이 辨證의 主要 要點이 된다.

(2) 本 方은 陽證陽虛에만 使用되는 것이 아니라 虛勞人의 增寒壯熱, 咳嗽不利에도 使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固陽湯이라 바꿔 부르기도 한다¹⁷⁾.

(3) 不得眠者는 모두 陽盛으로 因한 것이므로 溫劑를 禁하지만, 오직 汗吐下後에 虛煩하고 脈浮弱한 者는 陰液이 內竭한 것이므로 當然히 眞武湯을 溫服한다¹⁸⁾.

(4) 무릇 傷寒 四五日에 腹痛小便自利, 四肢沈重, 疼痛下利한 것은 眞武湯으로 主之한다¹⁹⁾.

(5) 本 方으로 痿躄病을 治療한다. 腹拘攣, 脚冷不紅, 小便不利, 或不禁者, 腰痠, 腹痛하며, 惡寒下利가 日數行하고 夜間에 더욱 甚한 것을 疝痢라 하는데 本 方을 使用한다. 또 久痢에 浮腫 或은 嘔가 있는 者에게도 역시 좋고, 産後에 下利腸鳴 腹痛, 小便不利, 肢體痿軟, 痲痺有水氣, 惡寒發熱, 咳不止하여 勞狀을 이루는 것은 더욱 難治이지만 使用해 볼 수 있다.

(6) 現代 臨床에서는 本 方을 慢性腸炎, 慢性腎炎²⁰⁾, 慢性肝炎浮腫, 甲狀腺技能低下, 腸結核下利,

17) 《王氏易簡方》

18) 《傷寒緒論》

19) 《傷寒全生集》

20) 本 方을 加味하여 腎臟炎, 腎病綜合證 20例를 治療하였다고 報告하였다.

慢性充血性心力衰竭²¹⁾, 慢性肺源性心臟病 等과 水腫이 나타나는 脾腎陽虛 者에 常用한다. 低血壓과 메니에르증후군²²⁾의 身軀動과 腎虛水停에 亦是 一定한 效果가 있다고 報告하였다.

5) 衍方

(1) 薑細味眞武湯 : 本 方에 乾薑, 細辛, 五味子를 加한 것으로, 陽虛肺寒, 咳嗽氣促等症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溫肺利水하는 效果가 있다.

(2) 香砂眞武湯 : 本 方에 木香, 砂仁을 加한 것으로, 陽虛脾寒氣滯, 脘脹納呆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溫脾理氣하는 效果가 있다.

(3) 五苓眞武湯 : 本 方에 桂枝, 豬苓, 澤瀉를 加한 것으로, 腎陽虛膀胱氣 不利, 水逆癰閉等症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化氣行水하는 效果가 있다.

(4) 桂枝眞武湯 : 本 方에 桂枝를 加한 것으로, 陽虛衛弱, 汗出惡風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調和營衛하는 效果가 있다.

(5) 理中眞武湯 : 本 方에 黨參, 炙甘草를 加한 것으로, 陽虛脾寒, 腹痛下利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溫中散寒하는 效果가 있다.

(6) 四逆眞武湯 : 本 方에 炙甘草를 加한 것으로, 陽虛寒凝, 脈微肢厥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溫中救逆하는 效果가 있다.

(7) 肉桂眞武湯 : 本 方에 肉桂를 加한 것으로, 陽虛血寒, 痺痛不仁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散寒止痛하는 效果가 있다.

(8) 黃芪眞武湯 : 本 方에 黃芪를 加한 것으로, 陽虛氣衰, 自汗短氣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補氣固衛하는 效果가 있다.

(9) 當歸眞武湯 : 本 方에 當歸를 加한 것으로, 陽虛血虧, 腰痠月經不調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化血調經하는 效果가 있다.

(10) 杜仲眞武湯 : 本 方에 杜仲을 加한 것으로, 陽虛濕痺, 腰膝痠痛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壯腰益腎하는 效果가 있다.

(11) 山萸眞武湯 : 本 方에 山萸肉을 加한 것으로, 陽虛不固, 遺溺滑精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補腎固精하는 效果가 있다.

(12) 桃核眞武湯 : 本 方에 桃核을 加한 것으로, 陽虛肺氣不足, 久咳氣喘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斂肺定喘하는 效果가 있다.

(13) 遠志眞武湯 : 本 方에 遠志를 加한 것으로, 陽虛陰盛, 心氣不寧, 驚悸健忘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安神益智하는 效果가 있다.

(14) 五萸眞武湯 : 本 方에 吳茱萸를 加한 것으로, 陰虛胃寒, 頭痛吐沫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暖肝溫胃하는 效果가 있다.

(15) 回香眞武湯 : 本 方에 小茴香을 加한 것으로, 陽虛寒疝症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暖肝止痛하는 效果가 있다.

(16) 羊藿眞武湯 : 本 方에 淫羊藿을 加한 것으로, 腎虛陽虛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補胃調陽하는 效果가 있다.

(17) 羌活眞武湯 : 本 方에 羌活을 加한 것으로, 陽虛感寒, 項背疼痛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祛風勝濕하는 效果가 있다.

(18) 桃核眞武湯 : 本 方에 桃仁, 紅花를 加한 것으로, 陽虛寒凝血瘀閉經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活血祛瘀하는 效果가 있다.

(19) 木通眞武湯 : 本 方에 木通을 加한 것으로, 陽虛溫蘊化熱下迫溺澀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清熱利濕하는 效果가 있다.

(20) 淡竹眞武湯 : 本 方에 淡竹茹를 加한 것으로, 陽虛感寒化熱煩躁症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清熱除燥하는 效果가 있다.

(21) 藿香眞武湯 : 本 方에 藿香을 加한 것으로, 陽虛感寒挾濕, 脘痞嘔吐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芳香化濕하는 效果가 있다.

(22) 桔干眞武湯 : 本 方에 桔梗, 射干을 加한 것으로, 陽虛感寒化熱咽痛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清熱利咽하는 效果가 있다.

(23) 防風眞武湯 : 本 方에 防風을 加한 것으로, 陽虛感寒, 身疼頭痛 等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祛風散寒하는 效果가 있다.

(24) 荊芥眞武湯 : 本 方에 荊芥를 加한 것으로,

《三年來的中醫藥實驗研究》, 219, 1959

21) 黑龍江中醫藥, 1 : 26, 1968.

22)《三年來的中醫藥實驗研究》, 219, 1959, 《湖南醫藥雜誌》2 : 14, 1978.

陽虛感寒皮膚癢疹證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疏風透疹하는 效果가 있다.

(25) 蔓荊眞武湯 : 本 方에 蔓荊子를 加한 것으로, 陽虛感寒頭目眩暈症을 治療한다. 溫陽疏陰, 疏風清熱하는 效果가 있다.

5) 臨床例

(1) 水腫²³⁾

① 性別 및 年齡 : 男, 59歲.

② 證狀 : 患者가 처음 發病時 頭面下肢에 午後浮腫이 있어서 洋方藥을 約 1個月 가량 服用하였으나 별 效果가 없어 中藥으로 바꿔 治療하기를 2個月 정도 했는데도 效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나빠져서 診療를 받았다. 全身浮腫을 만져 보니 凹陷되어 일어나지 않고 小便量은 적고 飲食은 잘 먹지 못하고 비록 口渴하나 마실 생각이 없었다. 身倦體寒하고 밤에 겨우 자도 따뜻하지 않고 面色은 灰暗無華하였다. 舌質은 嫩紅하고 舌苔는 黑而滑潤하고 脈은 浮大無根하였다.

③ 辨證 : 이는 眞陽衰極하여 土不制水하는 것이다.

④ 治療 : 炮附子 60g(先煎50分鍾), 白朮 24g, 白芍 24g, 茯苓 24g, 潞黨參 60g, 玉桂 6g, 炙甘草 24g, 生薑 30g(先熬出味)으로 處方하여 水煎 3次하여 먼저 것은 頓服하고 2, 3煎한 것은 次數를 不論하고 자주 飲服하여 하루에 一制를 다 마시게 했다. 위의 藥을 계속 3첩을 마신 後에 浮腫이 十에 六七정도 사라지고, 苔도 黑色이 사라졌으며, 脈은 浮하지 않고 오히려 沈하였다. 이는 虛함이 점차 衰하고 精氣가 점차 돌아오는 좋은 狀態이므로, 上記 處方의 附子, 黨參, 玉桂, 生薑의 量을 半減하여 繼續 4첩을 服用後에 모두 나왔다.

(2) 腎性水腫²⁴⁾

① 性別 및 年齡 : 男, 30歲.

② 證狀 : 十年 동안 面目에 恒常 浮腫이 있었고 下肢에도 間歇的으로 水腫이 있었다. 아울러 腰膝痠軟, 頭目眼花, 尿蛋白이 있었다. 急性腎炎을 앓은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入院하여 檢查한 結

果, 血壓은 120/84mmHg이었고, 精神痿靡, 面目浮腫하고, 腰腹下肢에도 水腫이 있었고, 舌淡苔白, 脈象沈細하였다. 尿는 比重1.010, 蛋白(++)이었다. 慢性腎炎(腎病型)이라 診斷했다.

③ 辨證 : 腎性水腫으로 辨證하였다.

④ 治療 : 眞武湯加 黨參, 山茱萸, 紫菀을 投與하였다. 一個月後 證狀이 輕減되고 精神이 好轉되고 胃納이 增加하였다. 二個月後 尿檢査를 3次하였는데, 正常이었다. 다시 三個月째는 去附子, 合參苓白朮散으로 健脾培本하였더니 좋은 效果가 있었다. 三個月을 治療한 後에는 一年이 지나도록 證狀이 다시 再發하지 않고 每日 8時間의 作業을 하였다.

(3) 心性水腫²⁵⁾

① 性別 및 年齡 : 女, 46歲.

② 證狀 : 平素 肺原性心臟病이 있었고 最近에는 全身水腫으로 因한 呼吸困難으로 來院하였다. 스스로 身體困重, 心悸胸悶함을 느끼고, 咳痰清稀, 小便清少하며, 食事量에 差異가 있었다. 檢査結果 呼吸 30次/分, 脈搏 100次/分이었다. 全身浮腫인데 下肢가 더 甚하였다. 四肢不溫하고 口脣에 紺이發하였다. 胸에 桶狀이 있고 打診하니 反響이 過度하였다. 舌苔白滑, 脈象細數하였다. 肺心病, 心機能不全으로 診斷되었다.

③ 辨證 : 心腎陽虛水腫, 痰飲咳嗽로 辨證하였다.

④ 治療 : 眞武湯에 黨參, 黃芪, 五味子를 加하고, 生薑을 乾薑으로 바꾸어 投與하였다. 一週日 治療한 後에 浮腫이 없어지고 咳嗽가 輕減하고 그 外症도 確實히 好轉되었다.

(4) 慢性氣管炎²⁶⁾

① 性別 및 年齡 : 女, 63歲.

② 證狀 : 咳嗽를 數年을 했고 寒을 만나면 發하고 痰多清稀, 心悸氣緊, 胸悶作嘔, 形寒肢冷, 脈沈細, 舌質淡, 苔白膩하였다.

③ 治療 : 眞武湯加 蒼朮, 細辛, 五味子를 投與하였다. 4貼을 服用하고 咳止平喘되었다. 그 後에

23) 《中醫雜誌》 7 : 39, 1965.

24) 《新醫學》 6 : 293, 1976.

25) 《新醫學》 6 : 293, 1976.

26) 《新醫學》 6 : 293, 1976.

健脾補腎藥을 服用해서 培本固根하였다.

(5)腎虛喘嗽²⁷⁾

① 性別 및 年齡 : 男, 56歲.

② 證狀 : 1962年 2月 診斷治療를 받았다. 平素 哮喘의 證이 있다가 매번 感冒가 있거나 過勞를 하면 다시 發했다. 이번에는 勞動後 汗出當風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惡寒發熱, 喘咳心悸, 胸緊如玉石, 喉中如物上涌하는 것같이 張口吸氣하였다. 小青龍湯을 먹었으나 發熱而大汗出하고 頭昏目眩하여 제대로 서있을 수 없고 氣陷欲脫, 面清肢冷, 心悸短氣, 喘咳不得平臥하였다. 頭目眩昏은 가만히 서있으면 괜찮아지고 움직이면 더욱 甚해졌으며, 小便不利, 舌質淡, 六脈沈微欲絕하였다.

③ 辨證 : 誤汗으로 傷陽하여 水氣上逆한 것으로 보았다.

④ 治療 : 眞武湯에 加味하여 炮附片 30g(先煎 50分), 白朮 12g, 白芍 12g, 茯苓 15g, 桂枝 9g, 補骨脂 12g, 五味子 6g, 生薑 30g(別熬濃汁, 一般入藥, 一般合黃糖別服)으로 處方하였다. 水煎을 3次 하고 먼저 1次 鈍服하고 2, 3煎은 數에 관계없이 자주 먹어서 하루에 1貼을 다 먹게 하였다. 위의 藥을 먹은 後 症勢가 好轉되었다. 다시 生薑을 15g으로 減하여 넣고 桂枝는 肉桂로 바꾼 것으로, 5貼을 먹고 각 症勢가 없어졌다. 다시 右歸丸으로 調理한 後 나왔다.

7. 白通湯

1) 處方構成

葱白四莖, 乾薑一兩, 附子一枚(生, 去皮, 破八片)

2) 關聯條文

少陰病 下利 白通湯主之(314)

3) 注家들의 說

成無己	白通湯溫裏散寒.《內經》曰: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葱白之辛, 以通陽氣; 薑附之辛, 以散陰寒.
許宏	少陰者, 腎水也. 若脈沈微, 下利無熱瘧者, 乃少陰客寒, 不能制腎水, 故自利也. 以附子爲君, 溫經散寒, 加乾薑之辛熱, 溫中益陽; 加葱白之辛, 以通陽氣也. 以此三味之劑而治下利, 若非內寒陰勝者, 不可用也.

王肯堂	或謂白通湯及白通加豬膽湯, 眞武湯與通脈四逆湯, 皆爲少陰下利而說, 除用薑附相同, 其餘之藥俱各殊異何也? 蓋病殊則藥異, 夫少陰下利, 寒氣已甚, 非薑附則不能治, 然下利之利无殊, 而兼有之證不一, 用藥故不同耳, 亦各從其宜也.
高學山	純陰無陽之症, 逼微陽于無何有之鄉, 主此湯. 而名之曰白通者, 蓋用薑附以大溫之, 又恐眞陽微極, 而其所居之位, 爲寒邪捍格, 而溫藥無可通之路, 故以辛熱之葱白, 體空氣利, 爲通陽之針錢耳.
柯琴	白通者, 通下焦之陰氣, 以達于上焦也. 少陰病自利而渴, 小便色白者是下焦之陽虛. 而陰不生少火, 不能蒸動其水氣而上輸于肺, 故渴; 不能生土, 故自利耳. 法當用薑附以振元陽, 而不得升騰之品則利止而渴不能止, 故佐葱白以通之. 葱白稟西方之色味入通于肺, 則水出高原而渴自止矣.
程應旆	下利不但與太陽之四逆輩有異, 亦與本經之眞武有異. 蓋上之君火, 表之標陽欲越, 已從渴處露倪. 須于溫法中使之得返于內歸于源方爲佳兆, 故用四逆加葱白易名曰白通, 通其陽而陰自消之義也.
錢潢	蓋白通湯, 卽四逆湯, 而以葱易甘草. 甘草所以緩陰氣之逆, 和薑, 附而調護中洲. 葱則辛滑行氣, 可以通行陽氣, 而解散寒邪, 二者相較, 一緩一速, 故其治亦頗有緩急之殊也.
尤怡	少陰病, 下利脈微者, 寒邪直中, 陽氣暴虛, 既不能固其內, 復不能通于脈, 故宜薑附辛而溫者, 破陰固裏, 葱白之辛而通者, 入脈引陽也.
王晉三	白通者, 薑, 附性燥, 腎之所苦, 雖藉葱白之潤, 以通于腎故名. 若夫《金匱》云: 面赤者加葱白, 則是葱白通上焦之陽, 下交于腎, 附子啓下焦之陽, 上承于心, 乾薑溫中土之陽, 以通上下, 上下交, 水火濟, 利自止矣.

4) 臨床應用

(1) 少陰症下利, 面赤煩躁한 戴陽症을 治療한다.

(2) 傷寒泄痢不已, 口渴, 不得下食, 虛而煩한 者를 治療한다.

(3) 下利腹痛, 厥하며 頭痛이 있는 者를 治療한다.

(4) 前眼房積膿(黃膜上衝)의 2例에 本 方에 五賊骨을 加한 處方으로 30餘貼을 써서 完全히 治療하였다²⁸⁾.

(5) 現代臨床에서는 本 方을 急性腸炎, 痢疾이 少陰症에 나타나는 者에 常用한다. 雷若氏病에도 效果가 있다.

5) 衍方

(1) 白通加豬膽汁湯 : 本 方에 豬膽汁 20ml, 人尿 100ml를 加한 것으로 本 方症의 陽格拒가 더욱

27) 《中醫雜誌》 7 : 39, 1965.

28) 《資料匯編》 2 : 12, 1977.

甚한 症에 下利不止가 있고 厥逆無脈, 乾嘔煩躁한 者를 治療한다.

6) 臨床例

(1) 亡陽胸滿²⁹⁾

① 初診證狀 : 體質이 素弱했는데, 溫補劑를 多服한 後에 漸次로 强壯하게 되었다. 다음해 3月 어느날 아침 일찍 頭暈, 胸滿, 四肢厥冷, 汗出이 있어서, 四逆湯을 一劑 服用케 하였다. 服用한 後에 手足이 暖해지고, 安睡해졌으며, 한시간 정도 잘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잠이 깨고 身苦하기가 前과 같아서 四逆湯을 다시 服用케 하니 조금 나아졌다. 10時間 後에 다시 身苦하여 四逆湯을 再服케 하였다. (附子를 60g으로 加重하였다.) 後에 조금 잘 수 있었으나, 罔 後에 身苦함이 더해졌다. 再診時에도 身苦함이 있어 多服頻服하였는데도 藥氣가 지나가면 다시 寒氣가 發하였다.

② 治療 : 四逆湯을 白通湯(附子를 90g까지 使用하였다.)으로 바꾸어서 服用케하니 바로 胸中の 陰氣가 四散되는 것을 느끼며 暫時 便安케되었다. 내가 吳茱萸를 炒해서 熱泡로 자주 胸部를 문지르라 하였는데, 胸部가 조금씩 舒暢되었다. 다시 白通湯의 原方에 吳茱萸를 15g 加해서 자주 먹인 後에 安然히 入睡하여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내가 걱정하지 말라 말하고 다음 새벽에 와보니 行動이 前과 같이 回復되었다. 後에 數日동안 大劑의 四逆湯과 白通湯을 連服하니 體力도 復元되었다.

8. 白通加猪膽汁湯

1) 處方構成

葱白 四莖 乾薑 一兩 附子 一枚(生,去皮, 破八片) 人尿 五合 猪膽汁 一合

2) 傷寒論原文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厥逆無脈 乾嘔煩者 白通加猪膽汁湯主之 服湯 脈暴出者死 微續者生[315]

(3) 諸家들의 說

成無己	《內經》曰: 若調寒熱之逆, 冷熱必行, 則熱物冷服, 下噓之後, 冷體既消, 熱性便發, 由是病氣隨愈, 嘔噦皆除, 情且不違, 而致大益. 此和人尿, 猪膽汁鹹苦寒物于白通湯劑中, 要其氣相從, 則可以去格拒之寒也.
方有執	人尿性寒, 膽汁微寒, 以之爲向導者, 經曰: 逆者從之此之謂也
不著撰人	白通湯本取通脈, 使沈者起, 微者盛也, 反厥逆, 無脈, 乾嘔而煩, 是葱白通上而不能通下, 其微陽之欲散未散者, 因葱而上越故爲嘔, 爲煩, 非徒無益而有害之寒也. 然非薑, 附, 葱白也辛熱, 猝難宣發, 則葱白之用, 豈爲過乎? 責在無開導矣. 故人尿, 葱膽汁飲引之.
柯琴	猪者水畜, 屬少陰也. 膽者甲木, 從少陽也, 法當取猪膽汁苦寒爲反佐, 加入白通湯中, 從陰引陽, 則陰盛格陽者, 當成水火既濟矣. 葱辛溫而莖白, 通肺以行營衛陰陽, 故能散邪而通陽氣, 率領薑附, 入陽明而止利, 入少陰而生脈也, 附子生用, 亦取其勇氣耳, 論中不及人尿, 而方后反云無猪膽汁, 亦可服者, 以人尿鹹寒, 直達下焦, 亦能止煩除嘔矣.
王晉三	白通湯, 陽藥也. 少陰下利, 寒氣太甚, 內爲格拒, 陽氣逆亂, 當用監制之法. 人尿之鹹, 勝猪膽之苦, 猪膽之苦, 勝薑葱之辛, 辛受制于鹹苦, 則鹹苦爲之向導, 便能下入少陰, 俾冷性消, 而熱性發. 其功乃成. 此又爲外護法也.
舒詔	少陰病, 下利脈微, 加以乾嘔心煩, 則爲陰寒在下, 陽煩在上, 法宜薑附以驅其陰, 然必加入人尿猪膽汁, 以除胸中雜錯之陽, 庶薑附得以下行其用. 其脈微續者, 陽氣以漸而復也. 暴出者, 勢必有 雀啄釜沸之象, 故主死也.
吳謙	是方即白通湯加人尿, 猪膽汁也. 加尿, 膽者, 從其類也. 下咽之後, 冷體即消, 熱性便發, 情且不違而致大益, 則二氣之格拒可謂, 上下之陰陽可通矣.
黃元御	人尿, 猪膽汁君相而除煩嘔, 薑附下行而溫水土, 葱白上達而通經脈. 脈應出矣, 而出不宜驟. 服湯而脈暴出者, 陽根已絕, 而外脫則死, 脈微續者, 陽根未斷而除回, 則生也.

4) 臨床應用

(1) 少陰戴陽證에 白通湯을 服用한 後, 下利不止하고 病情이 더욱 嚴重하여 厥逆, 無脈, 乾嘔, 心煩할 때 쓰인다.

(2) 크게 吐瀉한 後에 面目無神, 虛寒厥冷, 心下膨滿, 煩燥하고 霍亂之脈象이 微絶하거나 或은 脈象이 全無하고 단지 心下痺塞이 觀察될 때가 本方을 使用하는 좋은 標準이 된다³⁰⁾.

3) 現代臨床에서는 本方을 急慢性胃腸炎, 痢疾,

29) 《廣東醫學, 祖國醫學板》 1 : 40, 1963.

30)《餐治療雜活》

藪亂 等에서 本 方의 湯證이 나타날 때 使用한다.

5) 衍 方

(1) 益元湯：本 方의 加味로 즉 四逆湯에 生脈散(人蔘, 麥冬, 五味子)을 合하고 다시 黃連, 知母, 生薑, 大棗를 加한 것이다. 陰盛格陽의 戴陽證을 治療하는데, 方 中의 四逆湯으로 回陽하고 生脈散으로 益氣生脈한다. 黃連, 知母는 反佐한 것이고, 葱白, 童便은 外越된 虛陽을 反氣케 한 것이고, 生薑, 大棗는 和胃케 한 것이다³¹⁾.

6) 臨床例

(1) 泄瀉³²⁾

① 性別 및 年齡：男, 6個月.

② 證狀：患兒가 三日동안 腹瀉가 있다가 近來에 더욱 甚해졌다. 病院에서 檢査時 營養과 皮膚彈性에 問題가 있었으며 神疲, 前顛陷沒. 口唇乾燥의 證狀이 있었다. 血液檢査에서 赤血球 321萬, 헤모글로빈 60%, 白血球 3,200, 中性 38%, 淋巴 62%로 나타나 (1) 單純性 消化不良 兼脫水 (2) 營養不良 1° - 11° 로 診斷하였다. 一次의으로 抗生劑와 葛根芩連湯等의 中醫藥物로 治療하였다. 治療後에 瀉下無度하며 煩躁不安, 口渴, 嘔吐水樣液의 證狀이 있고, 다음날 새벽 患兒의 體溫이 38℃까지 오르며 唇舌煩躁, 口渴, 小便不利, 目眶陷沒, 睡臥露睛의 證狀이 있었다. 舌苔白膩. 脈細微無力하였다.

③ 辨證：患兒가 久瀉로 脾陽이 不振하여 病邪가 이미 少陰으로 入하여 陰盛格陽한 것으로, 病이 이미 重하였다.

④ 治療：白通加豬膽汁湯을 投與하였다. 川附片 15g, 乾薑 4.57g, 葱白 2寸, 童便 30ml, 豬膽汁 6ml로 處方하여 나누어 6次 服用하였다. 12月 21日 다시 診斷하니 體溫이 正常的으로 되고 泄瀉가 感해졌다. 그 後 溫中散寒, 健脾止瀉하기 위해 附桂理中湯加味方을 投與하였다.

9. 附子湯

1) 處方構成

附子二枚(炮, 去皮, 破八片), 茯苓 三兩 人蔘 二兩 白

朮 四兩 芍藥 三兩

2) 傷寒論原文

(1) 少陰病 得之 一二日 口中和 其背惡寒者 當灸之 附子湯主之[304]

(2) 少陰病 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脈沈者 附子湯主之[305]

3) 諸家들의 說

成無己	辛以散之, 附子之辛以散寒; 甘以緩之, 茯苓, 人蔘, 白朮之甘以補陽; 酸以收之, 芍藥之酸以扶陰. 所以然者, 偏陰偏陽則爲病. 火欲實, 水當平之, 不欲偏勝也.
方有執	附子湯者, 溫裏以散寒之要藥也. 主之以附子者, 附子溫經而寒自散也. 人蔘甘寒, 補其氣以扶陽以生. 芍藥酸平, 散其陰而爲陽之附. 茯苓甘淡, 淡以利竅, 逐水以消陰; 甘以入心, 順火以從陰. 朮味甘苦, 苦以燥濕, 制水而煖土; 甘以益脾, 和中而固本也.
不著撰人	附子湯, 最爲少陰中直捷中正之方. 蓋陰邪稍緩即變熱, 而爲上下攻冲之證, 便須曲爲酌量爲護. 若但背惡寒, 乃陽弱陰勝之常, 所謂無熱惡寒發于陰也. 更口中和, 則與咽乾, 煩渴者異也, 故灸之而又以此湯而溫補其中. 若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脈沈, 亦寒邪內中之本證. 故亦以此湯溫補之, 而無所回護, 取附子, 茯苓下溫其經. 不用乾薑之剛燥, 更以芍藥監之, 而附力乃便柔緩. 且以蔘, 朮徐培其中土, 以附子特爲鎮攝之主, 羽扇輪巾, 難以狀其從容決勝之度矣.
喻昌	傷寒以陽爲主, 上件病皆陰勝, 幾于無陽矣. 辛甘蓋陽也. 故用附, 朮, 蔘, 苓, 所以散寒而養陽. 辛溫之藥過多, 則恐有偏陽之弊, 故又用芍藥之酸以扶陰. 經曰: 火欲實, 木當平之, 此用芍藥之意也.
張璐	或問附子湯與眞武湯只互換一味, 何眞武湯主行水收陰, 附子湯主回陽峻補耳? 蓋眞武湯內, 生薑助熱附, 不過取辛熱之勢, 以走散經中之水飲; 附子湯中人蔘助生附, 純用其溫補之力, 以快復渙散之陽, 且附子湯中附, 朮, 皆倍于眞武, 其分兩亦各不同, 所以主治迥異, 豈可此例而觀乎?
汪琥	以附子爲君, 溫經散寒; 茯苓爲臣, 爲泄水寒之氣; 以白朮, 芍藥爲佐, 以益燥其中; 以人蔘爲使, 而補其陽, 以益其元氣, 散其陰邪也. 武陵陶氏曰: 四逆諸方皆有附子一枚, 此方兩枚可見也. 附子之用不多, 則其力豈能兼散表裏之寒哉! 二枚生用, 生則辛熱善走, 不獨溫少陰之經, 而又走衛氣, 以治背惡寒也. 邪之所奏, 其氣必虛, 蔘, 朮, 茯苓, 皆甘溫益氣, 以補衛氣之虛, 辛熱與溫補相合, 則氣可益而邪可散矣. 即用生附子之辛烈, 而又用芍藥者, 以斂陰氣, 使衛中之邪不遽全進于陰耳.

31) 《傷寒緒論》

32) 《新中醫》3 : 24, 1957.

柯琴	此大溫大補之方，乃正治傷寒之藥，爲少陰固本御邪之劑也。夫傷則宜補，寒則宜溫，而近世治傷寒者，皆以寒涼，克伐相爲授受，其不講于傷寒二字名實久矣。少陰爲陰中之陰，又爲陰水之藏，故傷寒之重者，多入少陰，所以少陰一經，最多死證。如少陰病身體痛，手足寒，骨節痛，口中和，惡寒脈沈者，是純陰無陽之證，方中用生附二枚，取其力之銳，且以重其任也。蓋少火之陽，鼓腎間動氣以御外侵之陰翳，則守邪之神有權，而呼吸之門有鎖鑰，身體骨節之痛自除，手足自溫，惡寒自罷矣。以人蔘固生氣之源，令五臟六腑之有本，十二經脈之有根，腎脈不獨沈矣。三陰以少陰爲權，設使扶陽而不抑陰，陰虛而陽無所附非治法之善也。故用白朮以培太陰之土，芍藥以滋厥陰之木，茯苓以利少陰之水，水利則精自藏，土安則水有所制，水潤則火有所生矣。扶陽以救寒，益陰以固本，此萬全之朮。其畏而不敢用，束手待斃者，曷可勝計耶。此與麻黃附子湯，皆治少陰表症而大不同：彼因病從外來，表有熱而裏無熱，故當溫而兼散；此因病自內出，表裏俱寒而上虛，故大溫大補。然彼發熱而用附子，此不熱而用芍藥，是又陰陽互根之理歟。此與真武湯似同而實異：此倍朮，附去薑而用蔘，全是溫補以壯元陽；彼用薑而不用蔘，尙是溫散以逐水氣。補散之分岐，只在一味之旋轉歟。
尤怡	氣虛者，補之必以甘；氣寒者，溫之必以辛。甘辛合用，足以助正氣而散陰邪，人蔘，白朮，茯苓，附子是也。而病屬陰經，故又須芍藥以和陰氣，且引附子入陰散寒，所謂鄉導之兵也。
王晉三	附子湯，少陰固本御邪之劑，功在倍用生附，力肩少陰之重任，故以名方。其佐以太，厥之藥者，扶少陰之陽而不調太，厥之開闔，則少陰之樞紐終不得和，故用白朮培太陰之開，白芍以收厥陰之闔，茯苓以利少陰之樞紐。獨是少陰之邪，其出者從陰內注于骨，苟非生附，焉能直入少陰注于骨間。散寒救陽尤必人蔘佐生附，方能下鼓水中之元陽，上資君火之熱化，全賴元陽一起，而少陰之病霍然矣。再論藥品與真武相同，唯生熟分兩各異，其補陽鎮陰之分岐，只在一味轉旋，學者所當深心體會。
吳謙	方中君以附子二枚者，取其力之銳，且以重其任也。生用者，一以壯少火之陽，一以散中外之寒，則身痛自止，惡寒自除，手足自溫矣。以人蔘爲臣者，所以固生氣之原，令五臟六腑有本，十二經脈有根，脈自不沈，骨節可和矣。更助白朮以培土，芍藥以平木，茯苓以伐水，水伐火自旺，旺則陰翳消，木平土益安，安則水有制，制則生化，此誠萬全之朮也。
黃元御	附子溫癸水之寒，芍藥清乙木之風，蔘，朮，茯苓培土而泄水也。

4) 臨床應用

(1) 婦인이 妊娠한지 6-7월에 脈弦發熱하고 그 胎가 더욱 脹해지고, 腹痛惡寒한 者가 少腹이 如扇하면, 이는 子臟이 欲開하려는 것이다. 마땅히

附子湯으로 溫臟해야 한다³³⁾.

(2) 陽虛로 氣分에 有寒한 것을 治한다³⁴⁾.

(3) 身體攣痛, 小便不利, 心下痞硬하거나 或 腹痛이 있는 者를 治한다³⁵⁾.

(4) 水病, 遍身腫滿, 小便不利, 手足汗, 腹拘攣, 食欲頗減하고 羸瘦가 더욱 甚해지는 것을 治한다³⁶⁾.

(5) 本 方으로 不語, 不食하고 羞明하는 病을 治療하면 좋은 效果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 作用機轉에 對해서는 더 깊은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⁷⁾.

(6) 現代 臨床에서는 寒濕痺症이 陽虛裏寒, 寒濕凝滯로 因한 것과, 虛寒性神經痛, 肌肉痛, 風濕性關節炎, 或은 類風濕性關節炎³⁸⁾, 胎脹하고 妊娠時 小便이 寒涼하고 隱痛한 者에 使用한다. 또한 胃下垂, 子宮脫垂, 白帶過多, 月經後期, 水病, 腰痛, 腹痛, 浮腫 等에 本 方證이 나타날 때도 使用할 수 있다. 이 境遇 人蔘, 附子를 重用하면 良好한 效果를 얻을 수 있다.

5) 臨床例

(1) 陰虛發熱³⁹⁾

① 性別 및 年齡 : 男, 51歲.

② 證狀 : 平素에 體質이 虛弱했는데, 7, 8월에 熱病을 앓았는데 이것이 治療되지 않았다. 漸次로 自汗如雨하고 昏沈하게 되었다. 舌燥裂하고, 小便點滴, 脈微欲絶하였다.

③ 辨證 : 이는 中洲가 虛寒하여 陽氣外越된 것이므로, 發熱多汗, 津液外泄, 舌燥裂, 小便短少한 것이다. 이는 虛熱이다.

33) 《金匱要略湯證論治》

34) 《資生篇》

35) 《方極》

36) 《類聚方廣義》

37) 《遼寧中醫學院》 6 : 43, 1960.

38) 北京中醫學院에서 風濕性關節炎과 類風濕性關節炎이 寒盛陽虛迫冷하는 證에 屬한 者를 治療하였는데, 一般的으로 附子를 9-12g 使用하고, 湯게는 30-60g까지 使用하였다. 附子는 반드시 먼저 40分 정도 끓여서 그 毒을 除해야 한다. 만약 그 使用量이 過大하면 心臟의 傳導機能 障碍나 呼吸麻痺가 發生하므로 大量으로 使用할 때에는 마땅히 그 病情을 細心하게 觀察해야 한다 《中醫研究通訊》 3 : 42, 1962.

39) 《福建中醫藥》 1958 ; 5

④ 治療 : 마땅히 甘溫함으로 大熱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患者의 家族은 實熱인 것 같다며 服用하기를 원치 않았다. 내가 “만약 實熱이라면 마땅히 煩渴引飲하여 脈을 짚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口不渴하고, 脈微, 多汗, 神昏하니 이는 元氣欲脫하려는 徵候이다. 또한 津液은 氣가 없으면 生할 바가 없고, 膀胱은 氣가 없으면 不化하니, 萬物이 土로써 根本을 삼고, 元氣도 土로써 집을 삼는 것이다. 급히 甘溫한 藥味로 汁을 짜서 中土의 權衡을 세워, 虛陽內引하면 諸證이 모두 나올 수 있다.” 고 說明하자, 家族들이 信賴하기 始作하였다. 附子湯에 黃芪, 浮小麥, 當歸, 肉桂를 加해서 세첩을 服用하니 止汗, 熱退하고, 舌潤하며 圓滑해졌다. 다시 十全大補湯에서 川芎을 去하고, 附子, 牛膝을 加해서 調理安全케 하였다.

(2) 胸痺(心筋梗塞)⁴⁰⁾

① 性別 및 年齡 : 男, 51歲.

② 既往歷 : 平素에 힘이 부쳐서 조금만 움직여도 恒常 밤에는 長期間 失眠하였다. 血壓은 190-170/120-100사이를 持續하였다. 겨울부터 恒常 心前區에 陣發性的의 刺痛이 있었다. 이듬해 봄에 疲困이 쌓이고, 情志가 不舒하면서, 갑자기 胸背劇痛, 大汗淋漓, 面色蒼白, 四肢厥冷, 手足青紫해지고 昏迷한 狀態까지 되었다. 급히 某醫院에 가서 心筋梗塞으로 診斷받고, 呼吸器를 使用하고, 輸液하는 등의 應急處置를 받고 3日後에 退院하였다. 그러나 精神이 模糊하고, 조금만 勞動하여도 心絞痛이 發作하였다.

③ 證狀 : 中藥治療를 받기 위해서 來源하여, 活血化瘀, 祛濕化痰, 育陰潛陽 등의 治法을 使用하였는데, 證狀이 時重時輕하였다. 突然히 心絞痛이 發하였는데, 證狀은 面色青黃, 劇痛難忍, 背冷惡寒, 汗出不止, 四肢發冷, 肢端青紫, 舌淡苔白多津, 脈沈細하였다.

④ 辨證 : 陰寒內盛, 胸陽不振한 것으로 辨證

⑤ 治療 : 背惡寒의 證狀이 있는 것을 보고 仲景이 “少陰病 得之一二日, 口中和, 其背惡寒者…… 附子湯主之” 라 한 것을 生覺하여, 附子湯에

加味하였다. 紅蔘, 炮附子 各10g, 白朮, 川芎 各15g, 白芍, 茯苓, 薤白 各30g을 急煎하여 屯服케 하였다. 服用後 暫時만에 汗出이 그치고, 精神이 好轉되며, 疼痛이 減輕하였다. 두첩을 服用한 後에는 背惡寒이 減少하고, 疼痛도 消失되었다. 繼續해서 上方으로 40貼을 먹었는데, 아직 心絞痛이 나타나지 않았고, 背冷도 消失되었다. 血壓은 150-140 /100-90사이에서 維持되었다.

IV. 考 察

傷寒論은 漢代 張仲景에 의해 著述되어진 후 韓醫學의 祖宗으로 여겨지고 있는 代表的인 臨床書籍으로¹⁾ 理.法.方.藥이 갖추어진 獨創的인 辨證論治體系를 수립하였다^{2,3)}. 그러나 傷寒論의 原文이 극히 簡潔하고 意味가 함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原本이 그대로 전해오지 않는 관계로 수많은 注家들의 다양한 偏次的 分析和 解析이 있어 왔는데, 宋代 朱肱과 清代의 汪琥는 經絡의 生理機能과 循行交會에 따라 六經辨證을 論하였고, 張志聰과, 黃元御는 六氣를 통해 六經辨證을 論하였으며, 柯琴과 徐大椿은 治方類型別로, 錢潢과 尤在涇은 治法類型別로, 沈目南과 包誠은 分經類證의 方法으로 傷寒論을 研究하였다⁵⁾.

近來에 이르러서는 日本, 中國 등에서 傷寒論의 處方을 이용한 多樣한 實驗과 臨床研究가 報告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關心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實情이다⁷⁻¹⁶⁾.

四逆湯證類는 《傷寒論》에 四逆輩라 稱하였는데, 모두 아홉개의 處方으로, 모든 方에는 附子가 있다. 四逆湯은 “四逆輩”의 基本方으로, 나머지 여덟 개는 症狀의 輕重과 差異點에 따라 處方을 造成하였다.

四逆湯은 陽虛陰盛의 病機로 因해 나타나는 證狀을 治療하는 處方^{2-4,17-22)}으로 本 方의 湯證은 急性傳染病의 後期에 三陰이 損傷을 받은 者가 病勢가 危篤하여 邪盛正衰하거나, 誤治로 大汗케 하거나 或은 霍亂으로 大吐, 大瀉하여 陰津液이 耗竭되고 氣가 津液을 따라 外脫되어 陽氣가 크게 衰

40) 《中醫雜誌》 11 : 39, 1981.

해지거나, 外感初期에 病人이 本來 陽虛하여 寒邪가 侵入해도 邪氣를 몰아내지 못해 裏部에 直中되는 경우에 나타나 그 病機는 모두 陽虛陰盛, 腎陽虛衰, 陰寒內盛으로 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24,27,28).

寒은 陰邪로 陽氣를 傷하기 쉬우므로, 寒邪가 入裏하면 腎陽이 傷하게 되는데⁵⁾ 지금은 腎陽이 衰하여 溫運할 수 없으므로 四末이 厥冷하고, 陰寒이 內盛하여 水穀을 腐化할 수 없어 下利清穀하고, 陰寒이 上逆하므로 嘔吐하며 能히 飲食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2-4,17-22,27,28)}. 따라서 治法은 當然히 回陽救逆해야 한다. 方 中에 附子是 溫腎扶陽하는데 生用하면 그 藥力이 더욱 强하게 된다. 또한 乾薑은 溫中散寒하며, 炙甘草는 和中益氣하는데, 이처럼 三味가 서로 合하여 抑陰回陽의 效果를 發揮하는 것으로 본다^{17,19,21,22,29)}.

四逆湯의 辨證要點은 太陰病에 腹痛下利하고, 完穀不化하거나, 少陰病에 惡寒身倦, 脈微細, 但欲寐하거나, 厥陰病에 表熱裏寒, 手足厥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6,26,27)}, 이 외에도 三陽病의 段階에서 誤治하여 陽氣가 大虛해지거나, 或은 平素 陽虛한데 다시 外邪에 感受된 少陰傷寒도 辨證의 要點이 된다^{6,28)}. 그러므로 臨床에서 應用할 때에는 四肢厥冷 或은 救急疼痛, 惡寒汗出, 或吐或利, 或吐利并作, 困倦嗜臥, 面白脣淡, 口中和, 小便清白, 舌質淡潤浮腫而嫩, 苔淡白或灰黑而潤, 脈沈微의 症狀들을 잘 살펴야 한다^{6,27)}.

四逆加人蔘湯은 霍亂에 利症이 스스로 그친 後에 나타나는 亡陽脫液의 證狀을 治療하는 處方으로^{2-4,17-22)}, 本 證에서 自利가 自止하는 것은 亡血될 뿐아니라 陽도 역시 衰微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前人들은 津液이 亡하여도 陽이 虛하지 않은 者는 그 津液이 스스로 再生할 수 있지만, 亡陽하고 津液이 不亡한 者는 그 津液이 繼續됨이 없게 된다^{17,18,21,22,25)}고 하였다. 그러므로 四逆加人蔘湯을 使用하여 回陽함으로써 生津케 한 것으로 本 方은 亡陽固脫에 使用함이 不可한 것은 아니지만, 陽虛하고 津液도 虛한 者에게 使用하는 것이 가장 正確하다^{6,27,28)}.

茯苓四逆湯은 汗, 下를 誤治한 後에 陰陽이 모

두 傷하였는데, 特히 陽衰한 것이 主가 되는 病證을 治療하는 處方^{2-4,17-22)}으로, 陽氣虛衰하여 肢體가 溫煦함을 얻지 못하므로 惡寒, 四肢不溫하고, 陰陽이 兩虛하고 水火가 離隔하므로 煩躁가 比較的 劇해지는데 煩은 陽이 陰을, 躁는 陰이 陽을 만나지 못한 때문이다. 陽虛하여 水氣凌心하면 心悸不寧하게 된다^{17,18,22,25)}.

本 方은 四逆湯에 人蔘, 茯苓을 加한 것으로, 乾薑, 附子是 回陽救逆하고, 人蔘, 茯苓은 益氣生陰하며 아울러 寧心安神, 補脾하고, 炙甘草는 補中益氣한다. 이처럼 諸味가 合하여 回陽救逆, 補益陰陽의 作用을 나타낸다^{18,19,21,22,25,29)}.

通脈四逆湯은 少陰이 寒化되어 眞寒假熱, 陰盛格陽된 證을 破陰回陽, 通達內外的 治法으로 治療하는 處方^{2-4,17-22)}으로, 少陰寒化, 下利清穀, 四肢厥逆은 陽氣가 衰敗된 象으로⁵⁾, 陽이 衰하여 四肢厥逆, 脈微欲絶하는 것은 心陽虛가 이미 極한 狀態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心은 血脈을 主하는데, 지금 心陽이 衰하여 血이 四肢에 達하지 못하므로 四肢厥逆이 나타나고 甚하면 脈微欲絶 或은 無脈이 되는 것으로, 이른바 裏寒外熱은 裏寒이 盛하여 格陽于外한 것이고, 裏寒盛은 心腎機能의 衰弱이 重하여 衰渴虛脫한 象으로 面赤의 假象을 띠는 것이다^{17,18,22,25)}. 上述한 諸證은 現代醫學의 心機能衰弱으로 볼 수 있고, 血壓이 急降下하는 등의 危險한 症狀이다^{6,27,28)}.

通脈四逆湯과 四逆湯의 藥味는 서로 같으나 그 量이 加重되어 乾薑이 倍加되고, 生附子를 大者로 使用하였다. 量이 增加된 理由는 病勢가 이미 危急하여 四肢厥逆, 脈微欲絶, 面色赤하고, 陰寒內盛하여 陽氣가 將次 脫하려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辛熱慄悍한 藥味를 使用하여 眞陽을 填補하여 陰寒의 邪를 몰아낸 것으로, 附子를 重用하여 溫腎陽하고, 乾薑을 重用하여 溫脾胃한 것이다^{18,19,21,22,25,29)}. 腎은 先天의 本이고 脾胃는 後天의 本⁵⁾이므로, 이 둘이 剛健하면 全身이 振奮하여 陰寒의 邪氣가 即時로 除去되며, 또한 附子和 乾薑이 서로 配合되면 附子의 毒性이 減해지고, 甘草의 甘溫한 味가 合하여져 補中和陽하여, 三味가 서로 合하면 內로 陰寒을 破하고 少陰의 陽

氣를 壯하여, 外越한 陽이 돌아와 絶하러던 脈이 回復된다^{19,21,22,25}.

本 方의 辨證要點은 陰盛格陽의 證인데, 그 主要症狀은 裏寒外熱, 脈微欲絶, 身反不惡寒, 面色赤으로, 陽氣虛衰, 陰寒內盛, 陰陽格拒가 四逆湯證에 比하여 더욱 甚하여 亡陽脫脫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6,27,28}.

通脈四逆加豬膽汁湯은 吐利 後에 陽亡陰竭하여 陰陽이 阻格된 證을 治療하는 處方^{2-4,17-22}으로, 霍亂證의 吐瀉後에 四肢가 따듯해지고 腹中이 回復된 陽氣가 이미 回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本 方의 吐하되 吐할 것이 없고, 下利하되 下利할 것이 없는 것은 陽衰하고 陰竭한 危急한 症狀이다^{2-4,17-22,27,28}.

그러므로 이와 같은 證에 四逆湯만을 單用하여 回陽救逆하게 되면 陽藥에 의해 熱이 上泛하여 傷陰할 수 있고, 또한 陰寒이 內阻할 수 있으므로, 四逆湯으로 急히 陽을 回復시키고, 豬膽汁을 加하여 苦寒한 性으로 育陰, 濟熱한 것이다. 이처럼 反對되는 性의 藥味로 佐를 삼은 것은 辛溫한 四逆의 藥味가 陰寒에 阻格되어 嘔하지 않게 하여 回陽救逆케 한 것으로, 즉 陽을 引導하여 陰에 入하게 하고, 또한 陰을 和하여 降逆케 함으로써 藥效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眞武湯은 腎陽衰微하여 水氣內停, 泛溢된 證狀을 治療하는 處方^{2-4,17-22,24,26}으로, 少陰腎虛하여 下焦虛寒이 脾까지 影響을 미쳐, 陽虛로 制水하지 못하여 水氣泛溢하므로 水氣凌心으로 悸證이 나타나고, 上으로 淸陽을 犯하므로 頭目眩暈하고 아래를 犯하므로 小便不利한 것이고, 陽虛하여 水泛하므로 四肢沈重疼痛하고 兼하여 全身筋肉이 躁動하는 感覺을 느끼고 振顫欲倒(振振欲擗地)의 證狀이 있게 된다. 脾虛하므로 腹痛下痢, 小便不利가 있고, 甚하면 肢體浮腫이 있게 되며, 水溢于腸하면 泄瀉가 된다^{2-4,17-22,27,28}.

概括的으로 말하면 上述한 諸證은 한편으로 水氣凌心이, 한편으로는 脾腎陽虛水犯이 主가 되는데, 이 두 가지의 病機는 모두 腎陽虛衰로 因한 것이므로 本 方을 써서 溫陽利水하여 治療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方 中에 附子는 辛熱하여 溫腎助陽으로 裏의 寒水를 散하고, 白朮은 苦溫하여 補

脾燥濕, 益氣利水하여, 附子와 白朮이 合用되면 溫補脾腎하여 水邪를 祛하고 또 溫煦經脈하고 除濕止痛한다. 茯苓은 佐藥으로 健脾利水하고, 生薑은 溫中祛寒하여 表의 水邪를 散하고, 白芍은 酸寒하여 緩急止痛하고 制附子와 生薑의 辛燥함을 制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21,22,25}. 本 方證의 舌苔는 主로 多淡白或淡黑, 舌質濡潤 或浮腫하다. 또 淡靑紫色舌이 되거나 嫩紅하며 水滑하고, 或은 舌淨無苔剝脫하고, 역시 舌燥裂出血도 있게 된다⁶. 本 方을 服用한 後 도리어 舌潤熱退하는 者는 虛陽이 上浮하여 眞寒假熱된 舌象으로, 陽虛陰盛하여 水氣가 內停한 證狀을 溫行, 陰陽兩調의 作用으로 溫陽利水케 하는데, 臨床에서 脾腎陽虛로 水濕之氣가 凝滯不化한 各種의 證候에 모두 適用할 수 있는 處方으로 볼 수 있다^{6,27,28}.

白通湯은 陰盛戴陽하고, 陰氣下脫로 下利하는 少陰虛寒의 重證을 治療하는 處方^{2-4,17-22,24,26}으로, 少陰病에 下利, 四肢厥逆, 面赤하며 脈微한 것은 陰寒이 下部에서 感受되어 上部에서 虛陽을 逼迫하기 때문이며, 下痢하는 것은 陰寒이 內盛하고, 陽氣가 內虛하여, 火衰가 極하여 水가 制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思料된다.

白通湯은 四逆湯에서 甘草를 去하고 葱白을 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方中에 葱白은 宣通陽氣하여 解陰하고 또한 乾薑, 附子의 熱을 돌리며, 乾薑, 附子는 回陽함으로 厥逆을 治한다. 이 세 가지 藥物이 合하면 效能이 增加해 急히 升陽케 하여 陰陽升降을 平復케 하므로 諸症이 治療된다^{19,21,22,25}. 辨證要點은 少陰證이 모두 있고, 다시 下痢가 있는 것으로 四逆湯證보다 더욱 重한 것으로, 心脾의 陽衰가 이미 極하여 中氣가 下陷되고 脈이 不至하는 純陰寒에 屬한 證을 破陰回陽, 交通上下시키는 處方으로 特히 戴陽症을 治療하는 主方이 된다 할 수 있다^{6,27,28}.

白通加豬膽汁湯은 裏寒이 太盛하여 陽이 格拒함을 받고, 陽亡陰竭하여 虛陽이 上越된 少陰證을 治療하는 處方^{2-4,17-22,24,26}으로, 少陰證 下利에 白通湯을 服用하였는데 下利가 不止하는 것은 陰盛陽虛가 더욱 嚴重한 것이므로, 陰陽格拒가 더욱 甚해 厥逆無脈하고, 乾嘔하며 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것은 藥의 對症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湯藥이 陰邪의 格拒함을 받은 때문이므로, 白通湯에 다시 鹹寒苦降한 豬膽汁, 人尿를 加하여 引陰入陽케 한 것으로, 反佐의 作用을 取하여 陽性의 藥이 陰寒에 格拒되지 않게 하여 回陽救逆의 目的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熱因寒用” “甚者從之”⁵⁾의 意味라고 볼 수 있다^{19,21,22,25,26)}.

本方은 白通湯에 豬膽汁과 人尿를 加한 것으로 白通湯으로 破陰回陽하고 通達上下케 하고, 鹹寒한 人尿와 苦寒한 豬膽汁의 鹹寒苦降한 性味를 取하여 陽藥으로 하여금 陰中에 入하게 한 것으로, 回陽破陰의 作用과 함께 同時에 降逆止嘔한 效能을 갖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19,25)}.

附子湯은 陽氣虛衰, 陰寒內盛한 少陰陽虛證을 治療하는 處方^{2-4,17-22,24,26)}으로, 督脈이 背部를 巡行하고, 督脈은 또한 諸陽을 監督하므로 陽虛하면 背惡寒하고, 陽氣가 四末에 充達하지 못하므로 手足이 冷하고, 寒濕이 經脈骨節에 稽留하여 氣血運行이 不暢하므로 身體와 骨節이 疼痛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口中和한 것은 不渴不燥하고 熱象이 없는 것으로 少陰陽衰하였기 때문이며 裏陽이 不足하고 中陽의 氣가 陷하여 不舉하므로 上昇, 外達할 수 없어 脈沈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23,25,27)}. 大溫大補의 方劑로, 方中에 附子는 溫辛祛寒, 燥濕止痛하고, 人蔘은 大補元氣하고 附子의 通陽力을 增強시키고, 白朮, 茯苓은 健脾化濕하며 附子의 除濕力을 돕고, 芍藥은 和營止痛하면서 아울러 附子의 辛燥한 性을 製制한다. 이처럼 五味가 合해져 溫腎助陽, 祛寒化濕의 藥力을 나타낸다^{2-4,17-22,24,26)}. 程¹⁶⁾은 “白通, 通脈, 眞武湯은 모두 少陰下病를 治하는데, 白通, 四逆湯은 附子를 生用하고, 오직 眞武湯만 熟用하였다. 대개 附子를 生用하면 溫經散寒하고 炒熟하면 溫經祛飲하는데, 白通湯은 通陽을 爲主하고 眞武湯은 溫陽을 爲主하므로 藥에 重輕의 差가 있는 것이다. 乾薑은 生附子를 도와 溫經하고, 生薑은 熟附子를 資하여 散飲시킨다.” 고 하였다. 本方證은 陰證, 寒證, 裏證, 虛證에 屬하며 主證 外에도 或頭暈心悸, 或下利, 或浮腫, 脈沈細, 舌淡白而滑, 或淡黑而質滑潤, 或舌淨無苔而水滑하거나 或은 中間에 黑色을 띠고 兩邊이 白滑하

는 等의 症狀이 보이고, 이 外에도 恒常 身熱, 肢冷, 欲近衣被하는 等의 眞寒假熱의 象을 보이게 된다. 一般的으로 本方證의 患者들은 發熱이 甚하지는 않은데 만약 發熱이나 高熱이 있다면 이는 眞寒假熱이거나 아니면 少陰과 三陽이 반드시 合病된 것으로 볼 수 있다^{6,27,28)}.

傷寒 四逆湯類의 臨床活用^{6,27,28)}을 살펴보면 四逆湯은 心氣硬塞, 心衰, 急性 및 慢性胃腸炎 或 急性病 등의 心胃腸 疾患에, 四逆加人蔘湯은 心動過緩, 吐血, 麻疹後泄瀉 危證 등 亡陽과 亡陰을 兼한 證에, 茯苓四逆湯은 風濕性心臟病, 肺源性心臟病, 心筋梗塞, 急性胃炎, 慢性胃腸炎 등에, 通脈四逆湯은 急性傳染病의 高熱後期에, 通脈四逆加豬膽汁湯은 陽亡陰脫이 嚴重한 證狀에, 眞武湯은 慢性腸炎, 慢性腎炎, 慢性肝炎浮腫, 甲狀腺技能低下, 腸結核下利, 慢性充血性心力衰竭, 慢性肺源性心臟病, 메니엘씨 증후군에,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은 急慢性胃腸炎, 痢疾, 霍亂 등에, 附子湯은 急慢性胃腸炎, 胃下垂, 子宮脫垂, 白帶過多, 月經後期, 水病, 腰痛, 浮腫 등에 應用될 수 있는 것으로 報告되었다⁵⁾.

臨床活용을 위한 各湯證의 比較鑑別은 아래와 같이 要約할 수 있다(표 1 참조).

● 茯苓四逆湯, 四逆湯, 四逆加人蔘湯의 鑑別.

茯苓四逆湯은 四逆湯과 四逆加人蔘湯의 複合方으로, 四逆湯은 回陽救逆하여 少陰陽虛陰盛證을 主治하며, 四逆加人蔘湯은 回陽益陰하여 少陰陽亡液脫證을 主治한다. 茯苓四逆湯은 茯苓이 君이 되어 寧心安神, 健脾利濕하므로 藥力이 比較的 四逆湯, 四逆加人蔘湯에 비해 緩하며 또 二方의 綜合作用이 있고 아울러 利水去濕의 功이 있으므로 臨床에서는 比較的 二方に 비해 廣範圍하게 應用된다.

●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과 四逆湯證과의 鑑別.

通脈四逆湯은 陰證似陽에 屬하여 身反不惡寒而面赤, 脈微欲絕, 或嘔利止而脈不出의 證에 使用하며, 通脈四逆加豬膽汁湯은 吐利 後에 陽亡陰竭하여 陰陽이 阻格된 證을 治療하며, 四逆湯證은 比較的 가벼워서 惡寒或身有微熱, 熱不祛, 脈沈遲細

微의 證에 使用한다.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은 모두 格陽을 治療하는데, 格陽은 內陰寒이 過盛하여 陽氣가 外에 被格되어 內眞寒外假熱의 證候가 되는 것으로 精神萎靡, 惡寒踰臥, 下利清穀, 四肢厥逆, 或利 等の 症狀이 發顯된다. 마땅히 回陽抑陰으로 治療해야 하므로 通脈四逆湯으로 主하나, 만약 陽亡陰竭의 症候가 있는 者는 마땅히 回陽救逆, 益陰和陽해야 하므로 通脈四逆加豬膽汁湯으로 反佐法으로 主한다.

●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과 四逆湯, 通脈四逆湯과의 鑑別

白通湯과 四逆湯症은 비록 疏陰陽虛症에 같이 屬하나 程度上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데, 白通湯은 이미 陰盛格陽의 症(眞寒假熱)이 나타난 것이고, 四逆湯은 陰寒에만 屬하는 것이므로, 本方症이 四逆湯에 비해 약간 重症이라 할 수 있다. 白通湯과 通脈四逆湯證의 面赤은 兩者가 비록 陰盛格陽의 眞寒假熱이 나타나지만 白通湯은 陰盛于內하고 格陽于外하며, 通脈四逆湯은 陰盛于下하고 格陽于上한 것으로 본다. 前者는 身熱과 不惡寒의 症이 있고, 本方은 陽이 위로 떠서 面赤하게 되며, 兩者의 特徵을 보면 虛寒症같이 面赤이 있으면 格陽于上한 것이므로 當然히 抑陽하고 上下의 陰을 宣通케 하는 白通湯을 쓰며, 虛寒症같이 身熱이 있으나 도리어 惡寒하지 않으면 格陰于外한 것이므로

로 當然히 抑陰하고 內外的 陰을 通達케 하는 通脈四逆湯을 쓴다. 또한 本方은 陽衰陰盛에 依해 面赤(面如粧, 游移不定)이 나타나는 것을 回陽破陰, 宣通上下하는데 重點을 두지만, 痢不止, 厥逆無脈, 乾嘔而煩者, 如陽亡陰竭, 虛陰上越같은 證狀에는 白通加豬膽汁湯으로 治療한다.

● 眞武湯, 附子湯의 鑑別

眞武湯은 少陽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自下痢, 四肢沈重疼痛,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의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으로, 平素에 素體陽虛하여 病이 된 것으로 溫陽利水(偏于溫散而逐水氣 其水邪在裏)하며, 附子湯은 少陽病, 口中和背惡寒, 手足涼身體痛, 骨節痛 脈沈의 症狀, 陽虛外寒, 經脈凝滯을 다스리는 處方으로, 溫陽益氣(偏于溫補以壯元陽, 其寒邪在外)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표 1. 四逆湯類에 대한 比較

方名 類別		白通湯	白通湯加豬膽汁湯	附子湯	眞武湯
病 因 病 機	類似	陽氣衰微, 寒氣內盛		陽氣虛衰, 陰寒凝滯	腎陽衰微
	相異	格陽于上	陽浮于上更爲產重	水寒浸清筋脈骨節之間	水氣內停
治 則		逐寒回陽, 溫通上下	逐寒回陽從陰, 引陽宣通上下	溫補以狀元陽	溫陽利水
病 狀	類似	脈微下利, 四肢厥逆, 但欲寐		手足寒脈沈	脈細 或弦細 或沈微
	相異	下利甚 脈微甚	乾嘔心煩	身休痛, 無熱惡寒, 口中和	身熱, 自汗, 心下悸, 頭暈, 身瞤動, 下利
藥 味	相同	乾姜, 附子		附子	附子
	相異	加葱辛 通陽氣	加豬膽汁, 人尿 從陰引陽宣通上下	人參白朮茯苓補益元氣, 芍藥益陰散結止痛	白朮茯苓生薑健脾利水, 芍藥斂陰

方名		四逆湯	四逆加入參湯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	茯苓四逆湯
類別	類似	陽氣衰微, 寒氣內盛				
	相異	或兼陽浮于外	兼陽竭于下	兼陽浮于外	兼陽浮于上 陰竭于下	兼陽浮于上 挾停飲
治則		回陽救逆	回陽固脫 益氣生津	逐寒回陽 通達內外	逐寒回陽 反佐苦寒 從陰引陽	扶心陽 止煩躁
症狀	類似	脈微下利, 四肢厥逆, 但欲寐				
	相異	無熱惡寒汗出 或身有微熱熱 不去	利止亡血	裏寒外熱 身反不 惡寒 面色赤或咽 痛	吐已下斷 汗出 四肢拘急 脈微甚	煩躁心悸 小便不利
藥味	相同	乾姜, 附子				
	相異	妙在甘草 以甘 緩病勢之急迫	加入參 益陰固脫	重用薑, 附 以通達內外陽氣	加豬膽汁 從陰引陽 通達內外	加茯苓 利水止煩躁

V. 結 論

四逆湯類에 關한 藥物構成, 適應病證, 病理 및 臨床活用 등을 比較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 四逆湯類는 共通的으로 陰盛陽虛證의 脈微下利, 四肢厥逆, 但欲寐를 治療하는데, 이 중 四逆湯은 無熱, 惡寒, 汗出, 或身有微熱, 熱不去에, 四逆加入參湯은 利止亡血에, 茯苓四逆湯은 煩躁, 心悸, 小便不利에, 通脈四逆湯은 裏寒外熱 身反不惡寒 面色赤, 或咽痛에, 通脈四逆加豬膽汁湯은 吐已下斷, 汗出, 四肢拘急, 脈微甚에, 眞武湯은 身熱, 自汗, 心下悸, 頭暈, 身瞤動, 下利에, 白通湯은 下利甚, 脈微甚에, 白通加豬膽汁湯은 乾嘔, 心煩에, 附子湯은 身休痛, 無熱惡寒, 口中和한 境遇에 應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四逆湯類의 病機를 살펴보면 共通的으로 陽氣가 衰微하여, 寒氣가 內盛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四逆湯은 或兼陽浮于外를, 四逆加入參湯은 兼陽竭于下를, 茯苓四逆湯은 兼陽浮于上挾停飲를, 通脈四逆湯은 兼陽浮于外를, 通脈四逆加豬膽汁湯은 兼陽浮于上 陰竭于下를, 眞武湯은 腎陽衰微, 水氣內停을, 白通湯은 格陽于上을, 白通加豬膽汁湯은 陽浮于上更爲危重을, 附子湯은 陽氣虛衰 陰寒凝滯, 水寒浸清筋脈骨節之間을 各各의 病機로써 略述할 수 있다.

3. 傷寒 四逆湯類의 臨床活용을 살펴보면 四逆湯은 心氣硬塞, 心衰, 急性 및 慢性胃腸炎 或 急性病證의 心胃腸 疾患에, 四逆加入參湯은 心動過緩, 吐血, 麻疹後泄瀉 危證등 亡陽과 亡陰을 兼한 證에, 茯苓四逆湯은 風濕性心臟病, 肺源性心臟病, 心筋梗塞, 急性胃炎, 慢性胃腸炎 등에, 通脈四逆湯은 急性傳染病의 高熱後期에, 通脈四逆加豬膽汁湯은 陽亡陰脫이 嚴重한 證狀에, 眞武湯은 慢性腸炎, 慢性腎炎, 慢性肝炎浮腫, 甲狀腺技能低下, 腸結核下利, 慢性充血性心力衰竭, 慢性肺源性心臟病, 메니엘씨 증후군에,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은 急慢性胃腸炎, 痢疾, 霍亂등에, 附子湯은 急慢性胃腸炎, 胃下垂, 子宮脫垂, 白帶過多, 月經後期, 水病, 腰痛, 腹痛, 浮腫 등에 應用되는 것으로 報告되었다.

參 考 文 獻

1.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寶出版社, p.26, 1986.
2. 朴憲在 :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出版局, 1995.
3. 文潸典外 :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部, 1998.
4. 姜鎭春外 : 傷寒學, 서울, 一中社, p.15-18, 1992.
5. 金聖勳外 : 東醫病理學, 大田, 한림원,

pp.5-6, 1992.

6. 李文瑞：傷寒論湯證論治，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3.

7. 錢宏孝：四逆湯臨床治驗舉隅，陝西醫學，11(6)，p.267-268, 1990.

8. 李洪善外：四逆湯治療鼻衄崩漏案，新中醫，9, 1985.

9. 施先民外：四逆加人參湯應用一得，中醫雜誌，2期，1990.

10. 歐陽誠外：加減茯苓四逆湯治療內耳性眩暈症有良效，浙江中醫雜誌，11, 1989.

11. 李德成，通脈四逆湯治寒暈失音，四川中醫，5期，1989

12. 仇增勇：真武湯主治肺心病伴右心衰竭28例，浙江中醫雜誌，1992.

13. 唐朝樞：四逆湯腸道給藥對家兔實驗性休克的治療作用，中醫雜誌，11, 1982.

14. 韓濤：附子湯對小鼠紅細胞膜流動性的影響，山東中醫學院學報，15 (5)，pp.42-44, 1991.

15. 韓濤：附子湯對心血管藥理的作用研究，山東中醫學院學報，16(5)，pp.33- 36, 1991.

16. 程宇慧外：四逆湯新製劑，中國醫藥雜誌15(8)，1990.

17. 成無己：注解傷寒論，珍倣宋版印，1987.

18. 柯琴：傷寒來蘇集，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

19. 吳謙：醫宗金鑑，서울，大星文化社，1983.

20. 尤在涇：傷寒貫珠集，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

21. 陳修園：傷寒論淺註，台北，文光圖書有限公司，1972.

22. 丹波元簡：傷寒論輯義，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23. 冉雪峰：冉注傷寒論，重慶，科學技術文獻出版社，1982.

24. 杜雨茂：傷寒論辨證表解，西安，陝西科學技術出版社，1984.

25. 喻嘉言：喻嘉言醫學三書，南昌，江西人民出版社，1984.

26. 丹波元堅：傷寒論述義，北京，人民衛生出版

社，1983.

27. 李培生 主編：傷寒論講義，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4.

28. 劉渡舟 主編：傷寒論辭典，북경，解放軍出版社，1988

29. 唐容川：傷寒論淺注補正，台北，綜合出版社，1975.